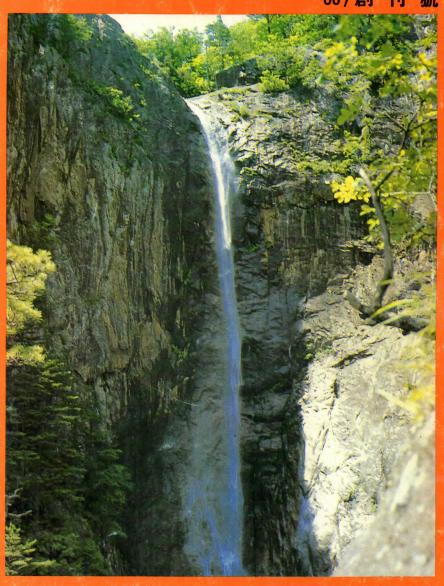
麟蹄文化

86/創刊號



赞 蹄 文 化 院

麟蹄文化86/創刊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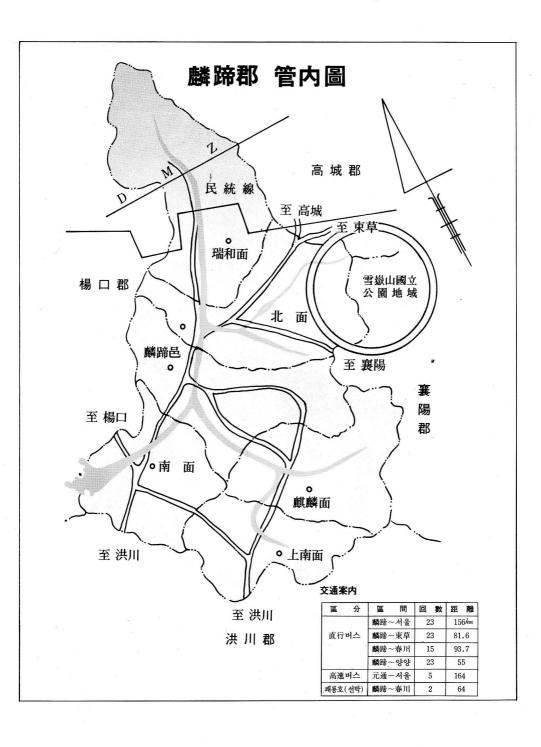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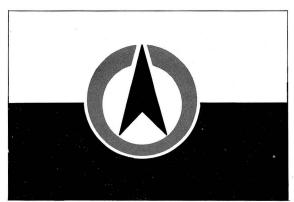


^{사단} 인 제 문 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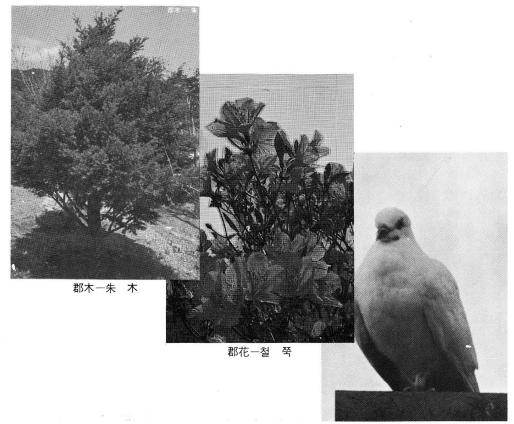
麟 蹄 郡 歌







郡 旗



郡鳥―백비둘기

- 1896.8.4 勅令 第35號 (1896.8.4 公布)로 府가 廢止되고 麟蹄郡으로 됨.
- 1945.8.15 解放당시, 3.8線 以北인 麟蹄面, 北面, 麒麟面, 瑞和面 一部가 共産治下에 들어가고 南面, 内面, 麒麟面 一部가 洪川郡에 編入
- 1954.10.21 法律 第350號로 收復地區 臨時措置法 施行에 따라 内面은 洪川郡으로, 楊口郡 亥安面을 麟蹄郡으로 洪川郡 新南面을 麟蹄郡 南面으로 環元
- 1963.1.1 法律 第1178號(1962.11.21 公布)로 亥安面을 瑞和面에 統合
- 1973.7.1 大統領令 第6542號(1973.3.12 公布)로 瑞和面 亥安을 楊口郡 東面 으로, 麟蹄郡 南面 斗武里를 楊口郡 南面으로,楊口郡 南面 上下水 内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洪川郡 内面 美山里를 麒麟面으로,春城郡 北山面 水山里를 麟蹄郡 南面으로 編入
- 1979.5.1 大統領令 第9409號(1979.4.7 公布)로 麟蹄面이 麟蹄邑으로 昇格
- 1983.2.15 大統領令 第11027號(1983.1.10 公布)로 麒麟面 上南出張所가 上南面으로 昇格

1. 面 積

(單位:kmi)

區	分	計	畓	田	林 野	기 타
ĭ	道	16,894	634	1,228	13,278	1,754
麟	蹄	1,951	21	69	1,756	105
對	比	11 %	3%	5%	13 %	6%

2. 人 口

(單位:名)

區	分	計	男	女
ŭ	道	1,816,365	927,598	888,767
麟	蹄	47,125	24,509	22,616
對	比	2.6%	2.6%	2.5%

※ 85年末 現在

3. 行政区域

4. 主要特産物

д	-F-1	117世紀	Ī	E	자여브라
邑	面	出張所	법정	행정	사연구닥
1	5	1	41	84	286

品	名	토종꿀	송이	산 채	더덕
生產	產量	4,360 ℓ	54,200 kg	54,300 kg (곰취·참나물·두릅)	6,600 kg

인 제 문 화

1986/創刊號

目 次

創刊辭/	金瑨鎔	 8	
祝刊辭/	鄭在哲	 9	
	金世基	 10	
	金世學	 11	
	梁斗錫	 12	

ㅇ民族文化 暢達에 더욱 邁進하자 朴虎亭/13

文

林奉壽/16

化

論

增

ㅇ애국가 제창에 대한 제언

이승호/18

ㅇ우리들의 民族史觀

〇文化財 保存

李德鎬/20

○文化藝術 活動의 健全한 風土 張福漢/22

時評

생각하는 힘/홍종표/24 꽃은 쉽게 꺾이나 뿌리는 永遠하다/전상규/25



		33		
a	-		п	
86	•	×		

郷土礼讃

- * 麟蹄의 자랑 內雪嶽/오정진/30
- * 지방 文化媒体의 活動/金顕緒/34
- * 麟蹄여 永遠하라/최병헌/36
- * 우리 고장 麟蹄/崔恒奎/38
- * 内雪嶽 禮讃/徐忠奎/39

특집화보

향토유적탐방/문화원 사업活動/40

특별기고

- 북괴의 흉계를 규탄하는 우리의 자세 이 제 규/46
- 東南亜 5個國의 文化에 대한 小考金 炳 喆/49

향토문예

- 瑞和里 <u>소</u>묘/최 양 대 ……………57
- 습 관/이 영 진 ······58
- 보따리 속의 사연/박 복 진 …………59
- 베푸는 사람들/김 영 미 …………61
- 인제문화원 사업일지/63





民族文化의 重要性

金 瑨 鎔 인제문화원장

이 고장은 먼 옛날 高句麗時代에 猪足縣 또는 鳥斯面이라고 불리어 오다가 新羅時代에는 稀蹄縣이라고 불리었고 其後 李朝時代에는 麟蹄縣 靈昭縣 等等 數次에 걸친 改稱을 걸쳐오다가李朝末 高宗 二十五年(1896年) 陰 8月4日 麟蹄郡으로 처음 昇格된 고장으로 全國에서 가장 넓은 面積(1951㎞²)과 人口 5 萬을 收容하는 寒村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옛부터 文化는 山으로부터 이루어 졌듯이 우리 고장은 많은 山과 깊은 溪谷 神秘스러운 만큼 奧妙한 天然資源을지던 國立公園 雪嶽山中에도 山의 眞髓를 만끽할 수 있는 自然 그대로의 內雪嶽山이 자리잡고 있어 옛부터 많은 古刹과 史蹟地가 많아 詩人墨客들이 즐겨 찾았다는 곳으로서 國際觀光地로서의 發展이 期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環境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經濟的 으로 文化的으로 其 與件이 너무나 貧弱했던 것 이 事實입니다.

이는 우리民族으로서는 夢寐도 잇을래야 잇을 수 없는 6·25의 同族相爭과 38線이 우리郡 北쪽 一部를 갈라놓았던 것이 그 原因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多幸히도 至今까지 우리의 모든 文化政策이 中央集中의 現象을 가져왔으나 80年代에 들어서면서 地方文化 暢達에 力點을 두게됨에 따라 늦은 感은 있으나 이에 힘입어 우리 고장에서도 어설프긴 하지만 무엇인가 할 때가 왔다고 보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읍니다.

외롭고 지혜롭게 슬기로 自身을 불사르다 가신 우리고장의 先人들의 化身인 有形無形의 文 化遺産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날에 밝은 燈臺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일입니다. 文化란 한 民族의 精神의 뿌리 요 한 民族 한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것입 니다.

2次 世界大戰中「프랑스」는 그들 難攻不落 마지노線이 「나치스」로 하여금 侵攻을 받게 되자 파리의 貴重한 文化遺蹟이 破壞되는 것을 念慮 하여 아무런 저항없이 後日을 期約하며 獨逸軍 의 侵攻을 許容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文化의 所重함을 느꼈을까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름다운 우리 文化遺産도 흐르는 歲月과 함께 빛이 바래고 잊혀져 새로운 것 便利한 것 좋은 것 만을 希求하는 時代的 慾求에 사로잡혀 우리의 곁에서 하나 하나 사라져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創立된지 2年餘 밖에 되지않는 우리文化院에서 敢히 우리民族의 悠久한 文化遺産을 더듬어 보고 우리고장의 文化를 紹介하고자「麟蹄文化」誌 創刊號를 펴내게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本誌의 出刊을 祝賀해 주신 각 機官 長님과 소중한 玉稿를 보내 주신 諸賢님, 그리 고 많은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有志님 및 편집 위원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祝刊辭



正務長官 鄭 在 哲國會議員 鄭 在 哲

이번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鄕土 誌"麟蹄文化"를 發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 로 祝賀하며 이렇게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鄕土誌라 그 고장의 모든 지나온 자취와 現實을 소상 하게 記錄하는 것에만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祖上들의 발자취와 얼을 더듬 어 그 속에 이어져 내려온 主体的 傳統文化 의 脈을 찾아 郡民 모두가 하나로 團結하여 鄕土文化를 계승. 發展시키는데 있으며 내 고장의 地域社會發展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장 서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起爆劑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郡民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내고향을 世界에 자 랑할 수 있는 觀光名勝地로 가꾸고 地域社 會가 均衡있게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 主体的 傳統文化의 脈을 찾아 郷土文化를 계승, 發展시키고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起爆劑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 麟踞郡은 우리나라의 觀光의 中心인 雪嶽山을 포함하여 秀麗한 山勢와 由緒깊은 寺刹등 자랑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더욱 아끼고 가꿔서 우리 고장이 크게 発展하여 全國에서 가장 잘 사는 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읍 니다. 本人도 여러분의 노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全心全力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또한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本 鄕土 誌가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생각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形便에서이 만큼 훌륭한 鄕土誌를 發刊하게 된 것은 참 으로 뜻깊은 일이며 그동안 本誌發刊을 위 하여 心血을 기울여 주신 편집위원 및 관계 자 여러분과 全郡民에게 깊은 感謝를 며 앞으로 無限하 發展이 있기를 祈願 합니 다.



金世基

五萬 郡民의 오랜 바램이었던 鄉土文化誌 가 文化院 開院 3週年 記念事業으로 刊行 된다고 하니 더 없이 반가운 일이라 여기며 創刊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開院期間도 日淺한 麟蹄文化院이 이같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實로 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一念 없이는 상상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郡民의 眞正한 바램이무엇인가를 잘 看破했다고 하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創刊을 보게된 "麟蹄文化"誌는 온 郡民의 사랑을 받으며, 鄉土文化 發展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期待 속에서, 해를 거듭하며 着實하게 成長하리라는 것을 믿어의 심치 않습니다.

五千年이라는 長久한 歷史를 지닌 우리 民 族文化의 뿌리는 國家와 民族의 繁榮을 主 導하여 왔으며 어떠한 外勢에 屈하지 않고

地域文化의 傳承啓發과 文化活動이 活發하게 展開되어 郡民의 情緒函養과 價値觀定立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奮然히 일어서는 굳건한 國民의 精神的 支柱가 되여 왔으며 오늘의 燦爛한 民族文化로 꽃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郡은 他 地域에 比하여 볼 때 鄉土文化의 傳承保存이나 活動面에서 매우 未洽하고 不進하였던 점을 否認할 수 없읍니 다.

이제 "麟蹄文化"誌의 創刊을 契機로 地域 文化의 傳承啓發과 文化活動이 活發하게 展 開되여 郡民의 情緒涵養과 새로운 價值觀定 立에 큰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끝으로 本誌創刊을 爲하여 盡力하신 金瑨 鎔 麟蹄文化院長님과 編輯委員 여러분의 勞 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있기를 祈願합니다.

丙寅年 歳暮에

祝刊辭



金 世 學 인제 경찰서장

五萬 郡民의 念願이었던 麟蹄 鄕土文藝誌 가 이고장 文化 暢達에 뜻을두고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創刊뭉를 내게 된 것을 郡民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始作이 뿌이라고 本誌는 麟蹄郡民 모두의 반려로 해와 뭉를 거듭하면서 크게 發展되어 나갈 것이라면서 疑心하지 않습니다. 지금 先進國 隊列에 곧 서게 된다고 합니다만 先進國이란 경제력 그것만이 아니라 文化의 높고 낮음이첩경이라고 합니다. 中東地域의 産油國들이所得은 높지만 그들을 先進國이라고는 하지않습니다. 近來에는 관광을 함에 있어서도 趣面이 어떠한 景觀보다는 文化的인데 눈과

◆世界的인 名山雪嶽山을 안고 있는麟蹄. 이것을하나씩 정리하여内外에 宣揚해야 할 것입니다

발길이 모아 지고 있읍니다. 世界的인 名山雪嶽山을 안고 있는 우리 고장에는 크고 작은 文化的 觀光 자원이 널려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정리하여 內外에 宣揚하여야 할 것입니다. 特히 지난해 우리 郡民들이 옛것을 더듬어 발굴한 麟蹄뗏목은 정말로 鄕土文化의 계발에 획기적인 成果였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意味에서 시의적절하게 발간되는 이 文藝誌는 이고장 文化를 한껏 꽃피우는 데 등불이되라라 확신하면서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합니다. 끝으로 本誌가 발간 되기까지 物心兩面으로 心血을 기우려 수고하여 주신 여러 先生님들에게 깊은 謝感를 드립니다.



濼 **斗 錫** 인제군 교육장

◆ 뿌리깊은 麟蹄文化는 寒溪古城,大勝瀑布, 百潭寺등 수많은 文化財 와 全國的으로 이름난 景勝地를 背景으로 더욱 發展했던 것입니다.◆

雪嶽의 絕景과 함께 살아온 이 고장 住民들은 自然을 지극히 사랑하며 秀麗한 江山을 노래하면서 人心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왔던 것이며 또 앞으로 無窮한 發展이기약된 未來의 고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 고장에 아름다운 文化가 싹티 크게 隆盛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濊貊族들이 無天의 祭典을 베풀었고 이 藝術은 이곳에 傳統文化를 形成하여 오늘날 麟蹄文化의 뿌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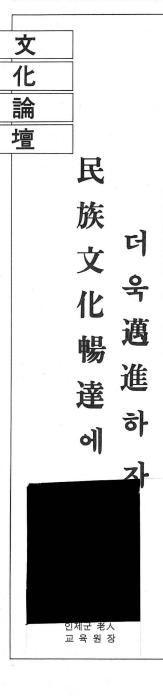
이렇게 뿌리깊은 麟蹄文化는 寒溪古城,大 勝瀑布, 百潭寺등 수많은 文化財와 全國的 으로 이름난 景勝地를 背景으로 더욱 發展했 던 것입니다.

名山大川을 背景으로 珠玉같은 作品이 수 없이 씌여졌고 그중 많은 作品이 오늘날까지 傳해져 오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장의 文人들은 그 傳承 에 힘쓰면서 열심히 作品活動을 하고 있으니 麟路文化는 더욱 찬연히 빛날 것으로 믿어 흐뭇합니다.

그러나 鄉土文化 研究와 傳承을 爲한 체계 的이고 研究的인 保存資料가 不足하여 늘 아 쉽게 생각하던 中, 이번에 麟蹄郡 文化院이 鄉土文化를 정리하고 또 이 고장 出身 인사 들의 옥고를 모아 鄉土文藝誌를 出刊한다니 아주 기쁜 일이며 뜨거운 마음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鄉土文化의 계승 發展과 文化暢達에 기여 하는 본 사업의 성공을 빌며, 앞으로도 麟蹄 의 鄉土文化가 찬란하게 꽃피워질 것을 기원 하며 祝刊辭에 가름합니다.



1. 序 文

우리民族은 悠久한 半萬年 歷史와 單一民族國家로서 民 族固有의 文化를 開發維持하 며 美風良俗을 助長하여 東 方禮儀之國이라는 尊稱을 받 고 있다.

그러나 近代에 와서 世界 속의 韓國이라고하는 大命題 하에 文物의 急速한 發達에 便乘하여 우리의 民族文化와 美風良俗이 沮喪退散되고 있 으며 外來風物을 無條件 받 아들이며 善好하는 경향이 있음은 甚히 유감되는 일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苦境에 國家에서 전국 각시군에 文化館을 建 立하고 그 地域사회의 文化 發展을 圖謀하게 한 것은 幸 甚이며 우리 地方士林은 至誠 을 다하여 溫故而知新의 精 神을 가지고 民族文化暢達에 邁進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의 文化史와 民族文化와 國 家盛衰與亡에 對하여 小序를 論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文化史

우리나라의 文化發達史를 大別하면 上古,中古,近世 로 區分되며 上古는 神市에 서부터 馬韓,弁韓,辰韓의 三葉까지는 民族固有의 文化 를 形成하여 神話,傳說,民 談으로 繼承發展시켰으며 中 古인 고구려,백제,新羅,고 려歷代까지는 儒學과 佛教를

수입하여 佛教를 全盛케하여 文明의 極致를 이루었고, 近 世의 李氏조선朝에는 儒學을 專崇하도록하여 국민의 직업 을 士農工商으로 定하고 士 族을 兩班, 農民을 平民, 工 商人을 常漢(쌍놈~쟁이,배,백 정이(家畜을 잡거나 파는者,食肉 店人)종)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李朝 第4代 世宗大王은 聖君으로서 國文으로 訓民正 音을 創案하여 有史以來 처 음으로 世界萬邦에서 쓰고있 는 表音文字를 國文으로 頒 布하여 世界的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表音文字 文化 隊列에 서게 하였다.

(1) 民族文化의 漢字의 由來

가) 民族文化

○無形:言語,神話,傳說, 俗談,文章,詩,歌,舞,陋, 수수께끼,禮儀凡節等의 順 이머

有形:遺蹟,遺物等이다.나) 漢文

漢字는 지금으로부터 4千 여年前 中國의 蒼頡이라는者 가 創作한 表意文字로 우리나라의 中古時代에 수입하여 민족문화와 生活面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現在東洋에서 사용하고있는 漢字는 約2萬字가 되며 문교부에서 선정한 1,300字와 기타일반에서 通用되고 있는 1,800字가 쓰이고 있다.

다) 우리국민이 日常 쓰 고 있는 語句 ○국문語句: 5萬8千3百 여나 되고. .

○漢文語句: 15萬9百여가 있으며,

○混合語句: 국문어, 方言, 外來語等을 混合한 15萬 5千 5百여를 보통 쓰고 있다.

(2) 表意字와 表音字

가) 漢字는 表意字로서, 表象되어 있어 한자圈 각국人 은 表音은 各己 다르나 意味 는 同一하여 "酒"字면 "술" 이라는 것을 서로 곧 알게 된 다

나) 表音字는 記號的이 므로 文字하나만으로는 서로 알지 못한다.

다) 實例(同一詩句)

○表意字: 景民席 愧自退. ○表音字: 국민이 욕하는 자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 고 물러나라.

(3) 現實과 未來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으로 强大國境線에 位置하여 있어 建國以來 許多한 外侵과 分 裂의 戰禍를 當하였고 그때 마다 民族文化는 毁損破壞되 고 言語風物에 큰 邊遷을 가 져왔으며 近代와 現實에도 日帝의 虐政 36年과 光復後 國 土의 兩斷과 思想의 分裂이 되지도 於然40餘年, 休戰線 北쪽땅에는 赤化로 우리民族 文化가 抹殺되여가고 있으며 우리韓國에도 急襲한 外來風 潮에 固有의 美風良俗과 禮 儀凡節에 큰 混沌이 되고 있 다.

여기에서 未來指向的인 民 族文化暢達을 爲하여 京鄉各 地에 散在하여 있는 文化財 保存,文藝,傳說,俗談等을 蒐集發掘하여 우리國民이 自 我를 名透하고 先祖의 美德 을 本받게하여 外來風物을 取 舎選擇하여 우리것과 調和를 이루게 하는것이 急先務이다.

3. 世界的으로 본 民族 文化와 思想과 宗教

(1) 世界 先進國中 代表的인 英國과 日本等의 現實을 불 때 이들 나라는 民族文化를 가장 오래 繼承 發展시킨 國 家이며 第 2次 世界大戰 이후 急波된 共産主義 侵入에도 國 基가 動搖됨이 없었으며 各 宗教의 派爭에 介入하지 않 고 國家主體性確立과 民族文 化振作으로 國家가 隆盛發展 되고 있다.

가) 英國의 禮式의 一例 英國은 國基的 生存方式은 勿論 皇太子의 結婚式에도 禮服과 儀仗 一切와 꽃 馬車 까지의 禮儀凡節을 祖上傳來 의 禮式 그대로하여 國家主 體性을 固守하고 있다.

나) 日本國民의 大和魂 日本은 國民의 精神基本을 建國理念인 大和魂에 두어

- 可)國民이 大同團結하여 國事에 臨하고,
- ㄴ) 萬世一系의 天皇에 忠誠 하며,
- こ)國民生活은 自主,自活, 自決 하고。

- 리) 文武, 技藝, 商工을 四海 에 振作하며,
- ロ) 他國家에 屈服隷屬되지 않는다.

다) 中共의 實用主義

中共의 民族文化는 人類社會에서가장 深化되어 있었으나 漢文의 古習과 三民主義者의 腐敗로 因하여 文物이 退化되여 一時的으로 共産主義에 雷化浮同하게 되었으나 期必고 實用主義로 變質하여 原點으로 換元하고 있는것은 孔孟子의 道學에 基因한 所以이다.

- つ)太古로부터 完全敗亡하 여 他國에 强點된 歴史 가 없고,
- L) 模做的 觀念없이 先史의 遺業과 創造의 國民精神 이 있으며,
- こ) 孔孟子의 道學으로 一貫 한 民族文化를 維持發展 하였다.
- 리) 小考: 6·25動亂時 中共 軍 手帖에서 發見한 語 切中 "고무신"은 代皮靴, 기관총은 機槍, "밭데리"



에게 權力은 주되 金權을 주지 않음으로서 後進國家에는

食官汚吏가 自生하여 不信思 潮와 虚築心이 充滿하게하여 外葬内貧케 만들고 國民에게 各種派黨을 作黨시켜 不平不 滿을 鼓吹하여 自傷踐踏케한 後 徐徐前 蠶食하는 것이다.

◎ 實例

日本의 實例

日本이 露 清戰爭에서 勝 **케한 後 東洋盟主로 自處하고** 朝日合併과 臺灣을 强點하以 來 滿洲를 占領하고 日人,鮮 人, 滿人을 混合하여 公人으 로 登用하여 武斷政治를 할 때 政治標語를 1. 内鮮一體, 2. 鮮滿一如라 하고, 日系는 (本俸 100萬원 加俸 50萬원), 鮮系는(本俸 50萬兒,加俸 25 萬원), 滿系는(本俸 25萬원) 支給(現下우리나라貨幣의比 例)하는 階層을 두어 權力을 주고 金力을 주지 않음으로 써 自國民끼리 뜯어먹는 貪 官汚吏가 自生케하여 自傷賤 踏하게 하는 奇想天外의 高等 政策을 實施하였던 것이다.

(3) 聖人과 民族文化

世界戰史를 보면 與亡盛衰하지않은 국가나 宗教가 없다. 그러나 各國의 民族文化는 聖賢의 道學에 基礎를 두고 繼承發展된 것이며 民族文化는 山野와 같이 永遠히그 民族과 共存하는 것이다. 例컨대 山野에는 各種動植物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나고 하나 山野는 萬古不變하고 如前하다.

이와같이 民族文化는 不滅

의 存在로서 그 民族이 있는 限 繼承發展되고 있는 것이 다.

가) 孔 子

孔子가 教化하여 한 곳은 支那黃河下流의 적은 地域이 머 그는 儒學의 忠孝思想에 根本을 두고 우리人間의 生 活規範을 三綱五倫과 修身齊 家와 積善으로 匡義를 定하 여 薫陶하였다.

나) 석 가

석가가 說法한 곳은 "갠지 즈"江의 流域의 좁은 地方이 며 석가는 인도의 文化를 暢 達하고 人類에게 慈悲의 供 德을 베풀어 무단 殺生을 禁 하고 因果應報를 主張하여 善한 者만이極樂世界에서 永 生한다고 教道하였다.

다) 예 수

예수는 유태地方의 세로 4 百里, 가로 2百里의 地域에서 유태人의 救世主로서 유태文化를 向上 發展시키고 世界 被압박 民族을 救하는 聖旨를 人類에게 宣教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引導하고 다음 天地를 불(火)로 심판할때 믿는 善한者만이 天堂에서 永生한다고 하였다.

(4) 우리나라와 聖人

우리나라에서는 中古 이후 부터 儒佛道에 依한 民族文 化가 形成되고 忠孝思想에 깊이 뿌리 박아온 관계로 한 강에 奇蹟을 가져온 急速한 發展이 된 것이며 앞으로도 儒佛의 聖道를 더욱 振作하 여야 될 것이다.

4. 結論

前述한 바와 같이 한나라의 民族文化는 宗教와 思想에 拘擬없이 永遠히 繼承發展되 어야하며 特히 우리나라에는 南北韓이 各己 異民族의 文化 圈에 接하고 있음으로 우리 는 自由를 尊重하고 韓國固 有의 民族文化를 繼承發展하 고 새로 發掘維持하며 先祖 의 美德을 本받는 教育을 6.25 事變 以後 世代에게 强調하고 反共教育을 俱體化하여 中共 의 實用主義와 共産陣營의開 放變質에 依한 共産主義의 衰 退에 對하 國民教育을 强化 하는 同時 우리의 民族,文化 暢達에 더욱 邁進하기를 希 求하는 바이다.

- 參考 1. 書籍~論語,永遠並 人間像,國民鮮朝歷史 (1949)崔南善著,各種辭典
 - 筆者는 光復共匪討伐作 戰,6.25動亂 參戰,釜 地區 捕虜審查委員 國校 長 歷任後 停年退任

文 化 論 壇

文化財保



存

林 奉 壽 **り**제 **冬**합 고 교 장

아득한 옛부터 人類들이 生存하면서 이 地球上에는 저 마다의 말과 風習이 다른 여 러 民族들이 各各 나름대로 의 獨特한 歷史와 文化를 이 루어 왔다.

우리 祖上들도 한반도에 자리잡고 살아온 以來 반만년의 오랜 세월속에 單一民族으로서의 傳統을 꿋꿋이 이어내려 오면서 特色있고 優秀한 民族文化를 創造해 내면서 가꾸어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歷史의 흐름과 文化의 發展속에 그 民族이 지니고 있는 精神과 技術로 固有文化가 創造 되면서지금까지(代代로) 전하여온 것이라고 본다. 또 文化는우리들에게 보여지는 歷史의산 중인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한다.

그 민족의 傳統文化는 그 民族이 지니고 있는 그 時代 의 精神 世界와 生活水準,生 活方式,그들의 風習을 그대 로 나타내 주며 全體的으로 는 그 民族의 文化發展 過程 을 보여주고 또 밝혀주는 것 이라고 하겠다.

우리 祖上들은 季節의 변화가 뚜렷하고 또 地方마다의 토질, 기후 그리고 주어진 自然環境과 自然物을 通하여 數千年 前부터이 고장에 알맞는 훌륭한 文化를 이룩하여 왔다.

우리는 고구려의 五色 벽화라든지 統一新羅의 佛國寺

를 비롯한 石工과 鑄工方面 에 찬란한 文化를 이룩 했으 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놀 랄 만큼 發達한 상감청자와 도자기 공예를 보고 그 나라 그 時代의 文化와 生活모습 을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겨레가 독창적 인 民族文化를 꽃피워 왔음 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그 民族이 지니고 있는 有形, 無形의 文 化財를 발굴하여 保存 하는 것은 民族의 傳統과 命脈을 이어갈 수 이는 高貴한 事業 이 아닐 수 없다. 一般的으로 有形 文化財라고 하는 것은 年 代가 오래되고 稀貴한 것이 기 때문에 자칫 훼손되거나 喪失되기 쉬운 것인데 大部 分 貴重한 價值를 지니고 있 어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는 것이어서 잃어버리거나 심지 어는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여 러나라에서는 自己들의 文化 遺産의 손실을 막기위해 文 化財 管理 및 保存에 많은 投 資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日帝治下의 36年間은 물론 解放 後에도 計會的 혼란과 민족상자의 비 극으로 말미암아 文化財保存 에 소홀한 동안 많은 文化財 가 훼손되거나 喪失되는 일 이 있었으나 다행하게도 60 年代부터 國家에서 文化財保 存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 이기 시작했으며 傳統文化 첫 달을 위하여 文化財 保存 사 업에 역점을 두어 전국에 산 재되어 있는 貴重한 文化財 를 補修하거나 整備를 했으 며 特히 無形 文化財를 널리 발굴하는 한편 人間文化財들 에 대한 無形的 文化를 계승 될 수 있도록 法的措置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우리 모두는 祖上들의 얼이 담겨진 文化 財를 保存하고 계승발전시켜 야 할 義務를 가져야 한다. 우 리들의 文化財는 우리 겨레 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요 산 證人인 동시에 祖上들 의 슬기와 얼이 담겨져 있는 값진 遺産이기 때문에 그것 은 어느 個人의 所有物이라 기보다 온 國民 모두에게 속 해있는 共同의 財産이라고 하 는 共同體 意識으로 保存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5千年의 찬란한 歷史와 傳 統. 그리고 文化藝術을 꽃피 워온 優秀한 民族精神을 立 證해주는 文化財를 通하여 자신있고 떳떳하게 긍지를 가 지고 世界속에 認定받아 총화 의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文 化財는 우리들의 自然環境과 祖上들의 生活樣式 그리고 政 治・社會・文化 등 精神世界 를 研究할 수 있는 貴重한 歷 史的 學術的 資料가 되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이 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를 어 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서 民 族文化의 모습이 새로운 뜻을 가지고 찬란히 그 빛을 發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文化財라는 高貴한 意味에 흠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도 文 化財는 잘 保存하고 잘 가꾸어야 한다.

で文化라는 것은 人類가 그 精神作 用을 活用하여 人 를 덧붙임으로서 보活을 보다 하고 작 하는 절하는 절하는 것이다. ③

「이탈리아」를 비롯한「그리스」등 그밖의 세계 여러나라들이 自己들의 文化財(施設)를 保存하고 이에 따른 自然環境을 文化財화 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自己나라로 유치하는 관광무역 운동이 活發히 展開되고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他山之石이 된다.

그런 나라가 외국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입은 國家 經濟에 큰 영향을 미쳐주고 있기도하며 文化財를 通한 관 광수입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번 아시아의 이름 으로 개최된 '86 아시안게임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잘 알 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認識하고 또 文化民 族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광 객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外 國人들의 수가 날로 增加되 고 있어 여러면으로 좋은 結 果를 가져오게 하고 있지 않 은가?

文化라고 하는 것은 人類가 그 精神作用을 活用 하여주어진 自然에 人智를 덧붙임으로서 生活을 보다 편리하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創造活動과 그 産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地方의 有形無形의 文化財를더 발굴하고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生活에 변화를 주고 次元높게 發展하는 우리 時代가되기를 바란다.

文

化

論

壇

·국가 제창에 대한 제언



군정자문위원장 이 승 호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통하여 자기 상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나름대로 애국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하는 소시민은 그 나름대로 애국자요 국리민복을 위하여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 직자 또한 그 나름대로 애국 자며 청치인은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는 애국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 며 우리 모두가 어느 부문에 종사하든 애국자로 자처하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 실이며이는 곧 국가 장래를 위하여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물론 애국은 나 라를 사랑함이며 나라사랑에 있어 어느것만이 나라사랑이 란 정해진 틀은없다.

국민 모두가 작든 크든 그 나름대로 마음에 나라사랑의 뜻이 있으면 이것이 곧 애국 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일에 선후가 있 고 또 정성의 척도를 가리어 그 진가의 경중을 가늠하는 예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행사에서 애 국가를 제창하고 국기계양 및 강하식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든일을 멈추고 애국가를 경청하며 방송이 들리는 곳 이나 태극기가 보이는 곳을 향하여 부동의 자세를 취해 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애국가를 제창하게 되는 많은 기회를 접하면서 유감을 갖게 됨은 나만의 생 각은 아닌듯 하다.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온 국민이 함께 부 르는 노래로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음악가인 안익태선생 님이 작곡하고 노래말의 작 가는 미상인 상태에서 일제 침략기에는 스코트랜드의 민 요곡 올드랭사인의 가락에 맞추어 불리었으나 1948 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 립과 때를 같이 하여 국가로 제정 오늘에 이른다.

아울러 애국가는 나라노래 이며 그 노래를 통하여 국민 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흩어 졌든 우리의 마음자세를 다 시한번 가다듬어 국민의 일 원으로서의 나의 위치를 재 조명하고 국가장래를 생각케 하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국 민화합의 노래인 것이다.

또한 노래말을 통하여 나라 사랑의 의지를 굳게 다짐하며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국민제창의 노래요 애국의 노래인 것이다.

그럼으로 아무리 톤이 높 다해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거나 망발로 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옛날 우리선조 들이 왜정 36년의 식민지 학 정 속에서도 일경의 눈을 피 하여 나라 없는 설음을 달래

애국가를 높 卫 우렁차고 장중하며 큰 목소리 呈 힘차 계 불러

며 애국가를 불렀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독립 운동가들도 애국의충정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으며 해외의 우국지사들도 고향 산천과 조국을 그리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애국가를 노래하지 않았는가

그러나그옛날 그분들이 그 토록 소리 높이 부르고 싶어 하든 우리의 애국가가 왜 이 지음 우리들의 많은 행사장 에서 녹음 반주나 밴드의 반 주에 가리어 적은 목소리로 불리어 지는 것일까?

우리 글 우리 말로 우리의 가 락에 맞추어 자유롭게 배운 우리 애국가를 1절부터 4절 까지 노래말을 아는 국민은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일까?

연세 높은 노인층이나 미취 학 어린이들은 차치하고라도 젊은층이나 지도층이라 자처 하는 분들이나 남보다 더욱 애국자연 하는 분들의 목소 리가 애국가 제창 때는 왜 그 리도 위축 되었느냔 말이다.

그 혼한 대중가요는 가락이나 가사 한자 틀리지 않고 목청 돋구어 목에 핏대를 올리며 악을 쓰듯 내뿜어 고성 방가로 남의 이목도 아랑곳 않는 분들이 내 나라 사랑하는 애국가 제창 때는 그다지 도 위축되고 기어드는 목청 으로 변하는가 말이다.

또한 국기강하식 때 길을 가 더 신사숙녀분들이 남의 집 처 나 밑이나 점포로 피하려는 몸짓은 그 무엇을 뜻하는 작 태더란 말이냐?

그러고도 그분들이 애국자 연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은 심정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제 우리는 민주 복지 국 가를 이룩해 나아가는 길목 에서 밖으로부터의 많은 도 전과 내부의 허다한 변혁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국 민의 화합과 애국심이 기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어 작은 애국심이나마 온 국민이한 마음 한 뜻으로정성드려 애국가를 높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고 장중하며 힘차게 합창하여 우리의 드높은 기상을 만천하에 떨칠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驚奇喜異者는 無遠大之識이요 苦節獨行者는 非恒久操니라

- 채근담 중에서 -

文化

壇

우리들의 民族史観



李 德 鎬

근래에 國史 교과서 문제 가 시끄럽다. 國史 교과서를 바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 다. 그러나 우리가 独立한지 몇 년인데 이제와서야 國史 교과서를 바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대두되어야 하며,역 설로는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 된다. 즉 여태껏 植民地史觀에 입각 한 國史教育을 해 왔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民族 主体性을 그렇게 외쳤지마는 그건 다 헛된 주장이었을 따 름인 것이다. 植民地教育을 그대로 두어서 民族主体性 을 운위했던 게 잘못이고, 더 구나 많은 學問 분야가 있지 만 특히 國史教育이야 말로 民族主体性과 직결되는 학 문 영역인데, 그 국사 교육이 아직도 植民地史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도대 체 民族主体性이 근본적으 로 안 되었다는 것이다.

이 처럼 文化的으로 植民 地性을 벗어나가기가 힘들고 또 그 멍에를 벗어 던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政治的 인 식민지는 独立만 하면 벗 어날 수가 있고 經済的인 식 민성도 自立体制만 건설 되 면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文化的인 식민성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를 괴 롭히는 것이다.

그것은 학문을 하는 學者 들이 스스로를 植民地 史學 者가 아니라는 편협한 자존 심 때문에 더욱 오랜 세월을 걸리게 한다. 民族史學의 소리를 미친 소리로 돌리고 자기의 연구야 말로 가장 實證 的인 방법을 동원한 과학적인 업적이라는 그릇된 아집이 작용하고 있기에 그 아래에서 배운 제2, 제3의 후예학자들조차 자기들의 학문이 植民地 史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씌어진 교과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코웃음으로 넘기고 여태껏 살아온 것이다.

한 사람의 學者에 의하여 誤導된 교습이 대를 이어 誤 導되어 가므로 학문의 맥락 은 오도 된 채 이어져 온 것 이다. 그러한 그 학자가 아직 까지도 자기가 이 나라 國史 教育에 저지른 잘못을 모르 고 있으니 문제는 더 큰 것이 다. 우리의 歷史彊域을 축소 시켜 誤導한 것이 科學的 實 證學問의 소산이라고 큰 소 리 치고 있는 限, 정신적인 식민지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또 다른 一群의 학자들에 의하여 참다운 研究 그리고 폭넓은 자세에 의하여 국사 교육을 바로잡아야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植民地 史學者의人脈이 막강하고 그들의 그릇된 研究業績이 크므로 이 러한 작업이 제대로 바로잡히려면 앞으로도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그렇든 말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고쳐가야 언젠가는 바로 잡힐날이올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루 아침에달라지는 改革은 바람직하지않다. 그러한 改革엔 悪感情이 작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改善에 의한 正説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學 者들의노력에만 맡겨 두는 것 도 좋은 일은 아니다. 學問은 科學이어야 하지만 姿勢는 정 신력의 영역이다. 그러한 정 신은 卓上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社會의 분위기 와 民族感情이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 풍조 가 植民地 根性을 버리지 못 하는데 學問만 民族의 主体 性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高麗青磁」「李朝白磁」라는 보편적인 용어에서 잘못된 植 民地性을 찾아낼 수 없는 국 민의 眼目이라면, 국사 교육 의 잘못과 民族主体性을 논 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李 朝」란「李氏朝鮮」이라는 약 어이고 이것이 전형적인 植 民史觀의 용어임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 은 벌써 식민지 근성에 젖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 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이 바 로잡히고 植民性을 극복할 66 하나의 植民性 에 벗어나기도 전 에 다른 하나의 植 民性에 젓어든 어떻게 리들은 어떻게 해 석해야 하는가. 스 스로를 망각하고 어찌 「우리」 되기 를 바랄 수 있을 까 99

때 民族史觀도 뿌리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高句麗・新羅・百濟」의 삼국 중에서 가장 対外活動이 강성했던 나라는?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이 高句麗 였다고 답하는 오늘의 현상은 文化 植民性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 正答이 百濟이고 왜 百濟가 正答이어야하는지 그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명이나 될까 그만큼 우리는 어두운 國史를 배워 왔고 가르쳐 왔다.

우리 스스로를 되찾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겠다. 다만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文化的인 植民性을 벗어나기가 그렇게도 힘든데, 日帝의 植民性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 또 다른 文化植 民性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 다. 北은 北대로 막스-레닌 주의 植民性에 몬입되어 있 고, 우리는 우리대로 西歐의 文物을 너무 비판없이 받아 들여 새로운 文化植民性에 오 염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敎育이 그렇고 오늘의 社會 風潮가 그렇고 価値觀이 그 러하다. 하나의 植民性에 벗 어나기도 전에 다른 하나의 植民性에 젖어든 우리들은 어 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스스 로를 망각하고 어찌 「우리」되 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 日帝 의 식민성에서 탈피하기를 노 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西 歐의 새로운 植民이 되지 않 도록 더 큰 노력을 해야 하 겠다.얼이 빠진 학문하는 사 람들의 모습에서 역겨움을 느 끼고 있다.먹고 살기에만 몰 두하다가도 자칫 얼이 빠지 는 愚를 범하기 쉽다. 「호랑 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 바로 차리면 된다」는 우리들 속담이 있다. 이렇게 도도한 世界性이라 이름의 西歐性에 서 얼이 빠지지 않는 主体性 을 지키고 하루 빨리 日帝의 植民性에서 벗어나 주기를 기 대한다.

文化論

塆

《化藝術 活動의 健全한 風土



張 福 漢 원통고등학교 교사

영국인들의 말중에 세익스 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 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 름대로 되새겨 보면 물질적 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더 중요시했던 그네들의 의식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생각된다.

중워 처하를 지배하며 온 갓 부귀영화를 누리던 만주 족은 漢族의 높은 文化에 자 시들의 言語는 물론 생각마 져도 송두리째 빼앗겨 지금 은 만족이란 말은 그 옛날 역사를 장식하는 한갖 역사 의 용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文化는 한 민족의 흥망성쇄를 좌우한다는 말이 성립되다. 그런데 한 민족의 文化는 여러 지방 문화가 모 여서 이룩되 복합적인 文化 의 집합체다. 그러므로 지방 문화의 육성 발전은 민족문 화 창달의 초석이 된다고 하 겠다. 이제 인제지방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 발전 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이며 철따라 변하는 산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곳곳에 많은 문화유적들도 있어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도 알 수 있다. 인제군의 모습을 살펴보면 동쪽은 설악 사이라는 항국 제임의 명산

이 있어 사계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방문 하고 서쪽으로는 소양호 상 류에 위치해 월척의 꿈을 안 고 찾아 오는 태공들이 있다. 북쪽으로는 금강산을 통해 원 산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전 해지나 불행하게도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어 갈 수 없는 땅이 되어 있고 남쪽은 우리 나라 남단으로 통하는 수려 한 길이 나 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인제에 자생적 으로 발생한 文化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 다. 그런데 그 文化의 자취 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향락만이 존재하는 인제가 되 어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 게 있는 것일까? 그 책임은 두 말 하지 않아도 인제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든 이 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늦었 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 한 시기라는 말이 있다.일제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생존 해 있는 노인들이 계신다.이 부들의 숫자가 더 줄기 전에 전통 문화를 복원하여 오디 오나 비디오에 담아 후손들 에게 물려 주어 계승해야 하 며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의 文化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민들 스스로에게 서 지방 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한다. 인제에도 합강제라는 예술제 가 있기는 하나 이는 주민 스 스로의 문화적 욕구라기 보

전시 行 事 ब्रे 를 과 계 毕 회 하 실 I 문 적 실 위주 제 천하 는 집고 의 는 行 과 넘어 政 정 에 H 가 0} 닌 7

다는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피동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따금 T.V를 보면 서울의 무슨 회관에서 무용 발표회다, 합창경연대회다,연 극제다, 민속놀이다 하는 것 들을 볼 때면 가슴속에서는 시골에 사는 것이 이렇게 문 화적으로 문맹이 되어 가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럴때면 왜 그런지 서글퍼진 다. 더구나 인제에는 나오지 않는 M.B.C일 경우는 민속 예술제나 합창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한 번으로 그치기 때문에 계속성이 결 여 되어 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여러 번 모이고, 모이면 무언가 나갈 방향이 제시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학교에서 예능교육에 의 관심, 어떤 예술을 하던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 하고 양성할 수 있는 곳은 학 교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 서 무언가 한 가지씩 배워서 졸업을 한다면 나중에 그들 이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 기가 관심을 가지고 배운 어 떤 문화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리 없다. 관심을 가진 교사 와 학생들이 틈틈히 배우고 익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인 제군에도 비교적 쉬운 사립 예술협회라든가,클래식 기타 동호회, 수석동우회, 등등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셋째.문화행사를 주도하는

관리들의 문화의식 향상이라는 점이다.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시효과 또는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집고 넘어 가야 할 문제이다. 지방에는 전문적예술인들이 적다. 그렇기때문에 관의 지원과 후원이 당분간은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지방유지라는 분들의 후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 인제지방의, 문화 발전을 위한 몇가지 방 법을 제시해 보았다. 현시점 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나, 다 행스럽게도 인제군 문화관이 개관되어 그 주인들을 찾고 있다. 이 장소는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라는 생 각이 든다. 모두가 부담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제 이 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 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생각하는 힘



북면 번영회장 홍 종 표

파스칼은 일째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깊이 생각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세상 형편대로 사물이 있는대로 물질 그대로를 자신의 思考化하는 것 같다. 生活속에 생각하며, 생각하며 生活하는 것이 곧 思索이요. 思索과 思考를 通하여 우리들에게 創造的實踐力을 얻게됨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存在와 自然과 社會와 文化 그리고 物質的 支配는 自身의 思考價值 程度에 따라 달라지게 됨이 마땅할 것 같다.

위에서 말한 創造라는 말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고 유권한에 속하는 말이다. 그 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 을 닮은 人間이기에 생각할 수 있고 思索하고 思考를 통 하여 文化라는 것을 낳게 되 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 "文化"이것은 人間만이 創 造할 수 있는 2 차원적 自然 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업 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깊 은 思索은 人間自體의 充電 施設이요 合理的인 思考는 神의 고유권한에 接近하는 方 法이 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 民族이 살 아간 발자취를 文化라고 일 컫는데 文化가 발달하면 할 수록 밝은 세상이 되고 밝은 세상은 행복하다고表現할수 있다면 文化야말로 人類가 希 求하는 平和일 것이다. 모든 學問과 眞理 藝術은 思索에 서 싹이 트고 이것을 精准하 고 이룩할 때 행복과 平和라 는 열매,文化가 꽃피고 열매 를 즐기게 되는데 우리 韓民 族의 文化를 돌이켜 볼때 엄 마나 많은 先人들이 思索・ 思考를 통하여 찬란한 結晶 體를 이룩하였는가?를 짧은 紙面을 通하여 열거할 수는

없지만 깊은 先覺者들은 太 山보다 높고 그 어느 형상의 실체보다 큰 것을 만들었고 世界를 귀감케하는 文化・歷 史를 創業한 것은 우리 民族 이 천부적으로 깊은 思索의 素質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가 아닌가 그런데 現代史的 우리 民族의 실정은 조금 다 른 것같다. 5천년의 文化・ 歷史를 6천만 겨레중에서 4 천만만이 간직하고 2천만의 겨레는 암흑文化라고 할 수 있는 날조 조작된 歷史와 文 化야말로 異民族化라 하겠다. 옛부터 韓民族은 빛나는 文化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 이(東夷)는 진나라의 동경대 상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우리民族의 統一은 같은 文化 의 바른 가르침과 훌륭한 文 化를 건설하는 쪽에 民心은 기울게 마련이므로 우리 6 천만 민족 가슴 가슴마다 統 一된 文化・歴史의 江이 흐 를때 정의와 진리가 和合되

는 統一로 가는 길이라 생각 된다. 그렇기 때문에 思索하는 생활을해야만 自我發見과 精進의 깊은 뜻을 알게됨은 勿論, 이웃과 社會에 이롭게 되는 보배가 아닌가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삶은 흉내내 기 생활이 되고 뿐만 아니라 自身의 思考는 녹슬고 眞空 으로 만들기 때문에 他人과 社會에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것 같다. 世月이 가는 것 인지? 人生이 가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새겨 생각해 봄 직한 일이 아닌가. 自然! 이 는 神의 섭리로 형성되어 이 치적으로 바뀌어만 가는데 왜 世月이 간다고 한탄만 하는 가? 自然도 겨울이라는 휴면 을 통해 재충전하면서 4季節 이 오가는것인데 人間! 너 는 思索이라는 自我充電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명 상의 時間은 人間回復의 길 인것 같다. 思索하자 合理的 思考가 文化를 創造하게 하 므로 幸福하고 平和가 되고 絕對神에 接近할 特權을 最 大한 活用함이며 自己自身을 지키는 尺度는 곧 생각하는 형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꽃은 쉽게 꺾이나 뿌리는 永遠하다



인제문화원이사 전 상 규

학창시절에 나에게 가장 반 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결 국 죽는다는 사실이였다. 죽 고만다고 생각하면 人生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하는 문제조차 그답을 갈팡질팡 혼란에 빠 져들곤 했다.

어차피 한번 밖에 없는 人 生이니까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고 민에 빠지기도 했다. "나"라 고 하는 사람이 社會에 공헌할 무언가를 하나쯤 이루어놓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각오 없이는 안된다는 점에 슬그머니 자신이 없어지고 만다 제기랄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하고 실은 짓마음대로 하다 죽으면 후회없는 삶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방식의 삶도 결국은 죽고 만다는 人生의 결말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다만 허무할 뿐, 도무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의 삶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또다시 맥이 풀리고 만다. "나(我)"가 있고서야 남(他人)도 있고 나라도 세계도 있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무슨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도 무

었이란 말인가 깊은 허무감에 빠진 나에게는 人間 존재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허무감과 공상으로 "나"라는 人生을 소비할 필요가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나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겠다.

눈만 뜨면 불꽃 튀는 전쟁이다. 社會라는 용기(用器)속에서 부닫치고, 혈뜻고, 시기하며 쉴 사이 없이 암투가벌어지고 있다. 남이 하는 짓을 전부하고 싶고 남이 가진 것을 모두 가져야하는 욕망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치 못하다. 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고 한다. 가진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일에 서고자 해서는 곤란하다. 남을 위하고 앞에 서는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남으로 하여금 호감을 산다고 생각된다. 남의 앞에설 자격이 있는 지 그만한 역량이 있는 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앞에 서서 옷줄 대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비웃음을 사게 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 와 따돌림 뿐이라고 생각된다.

처세에 능한 척 하는 人間 은 여름날 등불에 매달리는 하루살이의 운명을 자처하는 것이다. 남을 위할 때 남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이다. 남을 시기하고 밟으려고 하면 먼저 밟히고 만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 거나 아름다운 숲을 보고 쉽 게 감탄하고 꽃과 숲만 제일 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아름 다운 꽃도 싱그러운 숲도 눈 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 하려 고 들지 않는다. 인간은 저마 다 꽃이 되고저 하고 숲이 되 고저 한다.뿌리가 실한 식물 은 꽃도 숲도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한 식물 은 설혹 벌래나 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했 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는 반 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수 있다. 잘되는 서클이나 社會 단체를 보면 꽃이 되고저 하 는 사람보다 뿌리가 되고저 하는 사람이 많고 서로 잘난 척 하고 서로 똑똑한 척 하며 땅속에 묻힌 뿌리가 되는 것 을 원치 않고 모두가 꽃이 되 고저 다시 말하면 앞에만 또 는 윗자리만 서려고 하는 써 클이나 단체는 필경 지지부 지 깨지고 만다 오늘날 정가 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건 저마다 꽃이 되려고 하 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 뿌리 요 정치인은 꽃이다 꽃은 뿌 리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이 사회에서 꽃이 되고자 애 쓰는 사람은 꺽이기 쉽지만 묵묵히 뿌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인가는 주위에서 꽃으로 피워준다. 꽃은 순간 이나 뿌리는 영원하다.

모든 공과는 남에게 돌리 고 자신은 겸손하게 일할 때 누가 그사람을 싫다고 하겠 는가! 작은 감투라도 쓰면 그 감투가 대단한 것처럼 과 시하는 데만 급급했지 과연 자신이 쓴 감투가 어떤 것인 지조차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 도 있다. 하라는 짓 보다는 엉뚱한 짓을 하는 자신이 꽃 인양 고개를 들고 날뛰는 하 루살이 人生은 뿌리의 위대 함을, 뿌리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다. 나는 허무 하게만 생 각했던 人生을 이제 뿌리처 럼 살아가며 나름대로의 만 족을 찾고 살기로 했다. 이世 **ㅏ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 디 또 있겠는가?

친구도 나의 스승이요 이 웃도 나의 스승이다. 꽃은 순 간이나 뿌리는 영원 하다는 평범한 진리에 학생 시절의 人生의 허무함을 떨쳐 보기 로 했다.

◆ 心不可不虚り 虚則義理來 居하고 心不 可不實이니 實 則物欲不入 이니라.

- 菜根譚 中 -







합명회사 인제주류합동 인제탁주 합 동 양 조 장

대표 **한** 기 복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T 2 2460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T 2 -2558

신 남 휴 게 소 한 일 주 유 소

대표 민 창 우 인제군 남면 부평리 T₍₆2-6379 용₋₁6025

(한식일절•단체관광손님•접대완비)

일 미 장

대표 **남 상 묵** 인제군 인제읍 상동 3 리 T 2 - 2396

산 성 장

대표 남 정 우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T 2-2378

내 설 악 양 봉 원 ^{대표 전 창 준}

신 남 주 유 소

대표 전 태 호 인제군 남면 신남 1 리 T 2-6032



대한통운 인제출장소

소장 이 재 화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TEL. 2-2348

한국유일의 목공예 전문단지



(현지직접생산・전시판매・휴게시설완비)

위치:인제군 북면 한계2리 삼거리

TEL. 3-2020, 3-2060, 2-6900

中央製菓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丁 斗 鎰

麟蹄郡 麟蹄邑 南北面 311番地

TEL. 2-2531, 2-2532

* 20 t 4







내설악 송어 양식장

(송어회·송어구이·송어튀김·매운탕)

대표 박 수 영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장수대 입구)

TEL. 2-3169, 2-5267



대표 곽 인 규

인제군 북면 원통리 T 3-3145

로 얄 장 모 텔

원 통 제 재 소

대표 진 익 환

인제군 북면 원통리 T 2-3363, 2-3460

麟蹄의 자랑 内雪嶽



오 정 진 인제군 평통현의會長

1. 序言

雪嶽山은 萬峰 三十洞天으로 이루어진 山水美의 極致 를 이룬 世界的인 名山이다. 金剛山에 比해 交通이 不便하여 찾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오히려 雄大하고 秀麗하여 自古로 詩人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 한首의 時調로 미루어 보아도 雪嶽과 金剛은 山水 를 사랑하고 風流를 즐기는 뜻있는 이들의 왕래가 짖았 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구나 南北分斷으로 金剛 山이 鐵의 帳幕 저쪽에 아득 히 멀어져 버린 現實에 있어 雪嶽山의 所重함을 그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하여 1969년 12月에 國立 公園으로 指定되었고 雪嶽洞 을 中心으로 觀光基盤施設이 擴充되어 단풋철에는 하루에 數萬을 헤아리는 内外 觀光 客이 몰려드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雪嶽觀光이 이 산의 北主稜 線 以東의 外雪嶽에 編重되 여, 國民들로 하여금,雪嶽山 하면 束草市 雪嶽洞과 外雪 嶽을 聯想할 정도로 잘못 理 解되고 있으며, 이 國立公園 (373km²)의 60%와 絶景의 70 %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 장 麟蹄의 内雪嶽은, 登山客

을 爲主로한 極히 一部 國民 에게만 알려져 있는 形便에 있음은 참으로 遺憾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 심하게 생각되는 점은 이 世 界的 名山 雪嶽勝景의 70% 나 차지하고 있는 内雪嶽의 主人인 麟蹄郡民들이 이山의 所重함이나 山水美의 内容에 對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는 實情이어서 마치 보배로운 玉 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玉인줄 모르고 있는 것과 같 은 답답함을 금할길 없어 뜻 있는 郡民들과 함께 覺 醒을 促求하고자 감히 몇가지를 紹 介하고 捉言 하고자 하는 것 이다

2. 山名의 紹介

鷺山 李殷相 先生의 文選中 雪嶽記行 162페이지에 依하면 雪嶽山의 雪字의 由來에 對하여 輿地勝覽이나 文獻備考等은 仲秋始雪 至夏乃消,故名焉이라 하였고,錦園女史는 그의 "湖東西洛에 石白如雪 故名雪岳"이라 하셨다. 그러나 實相인즉 이 兩者가 다 이미 써놓은 「雪」字에理由를 붙이고자 붙임데 不

수 內雪嶽을 漢字를 버리고 겨레의얼이 담긴 우리말로 바꾸면「안술뫼 라 할 것이다 ⁹⁹

過하다 前提, 그 까닭을 例証한 뒤에, 雪嶽의「雪」은 古語의「술」에 對한 音譯字에 不過하며, 그 뜻은, 生命의 絶對肯定 絶對 維持를 意味하는 말로, 아래와 같이 그 實 列를 들었다.

가) 人間 凡有의 活動相을 總稱하여「산다」即「生活한 다」하는것과 그것을 名詞로 말할 때「삶」이라 하고, 그 「사」는 事實의 表示요 要件 인「呼吸」을 「숨」이라 하는 이 모든 말이「술」이란 語根 에서 나온 것이다.

나〉 또한 살고 있는 主体를 「사람」이라 하고,이 사람이 그 「삶」을 누리기 爲해 絶對 必要한 양식을 「쌀」(南方에서는 술)이라 하며,이 쌀(살)로 만든 음식을 먹는 器具를 「술」이라 하며 그 生命을 담아 갖인 身体의「外肉」을 「술」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술」이란 生命을 中心으로 하는 모든 것의 代表的 根本的인 말임을 분명히 알 수있다.

다) 人生을 살아 가는 지혜 를 「슬기」, 曙光을 던져 活 動을 開始케 하는 여명을 「시 병」, 그 進行을 「시」라 하고, 그 方向의 東을 「시」曉量을 「시별」, 또는 모든 것의 源 을 「심」이라 함이 다 이 「술」 이란 同語根을 가진 말이다. 따라서 「술」이란 「生命,生 活,呼吸,人間,米,肉,光明,源

活,呼吸,人間,米,肉,光明,源 泉」等을 全部 포함한 語根이 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雪嶽은「술 뫼」의 音誅에 不過하며「술」 이란 生命의 絶對肯定 絶對 維持를 意味하는 神聖한 우리 말에서 연유하였다고 기술 하였다.

內雪嶽을 漢字를 버리고 겨레의 얼이 담긴 우리말로 바꾸면「안술뫼|라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우리 조상들이 雪嶽山을 얼마나 神山 聖域으로 떠받들어 모셔왔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하겠다.

3. 몇가지 提言

모름지기 內雪嶽의 主人인 우리 麟蹄郡民들은 主人으로 서의 資貸을 갖추기 爲해 雪 嶽의 自然 및 文化에 對하여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겠는데, 그러기 氣해서는 아래와 같은 事業들이 地域 有志들의 能動的 参與下에 활발히 이루 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雪嶽山 一萬峰 三十 洞天에 걸쳐 散在해 있는 名 勝地의 이름과 規模를 正確 히 파악 記錄하여 누가 보든 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名勝地의 적당한 곳에 돌로 이름을 새겨 세워 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이다.

外雪嶽과 南雪嶽은 이러한 措置들이 나름대로 되어 있 으나, 內雪嶽에는 그것이 전 혀 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例를 든다면 十二 仙女湯 溪谷에는 金剛의 散珠淵에 비길만한 散珠沼와, 한 간 너비의 雄大한 臥潔이일곱 번 굽이쳐 쏟아지는 七音臺와, 드넓은 盤石 위를 역시 같은 규모의 와폭이 아홉 번 굽이치는 九仙臺等, 溪谷을 代表하고도 남을 絶景들이 즐비하게 있으나, 어느 觀光 案內図에도 表示된 것을 보지 못했고, 寫眞으로 紹介된 것도 發見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계곡에 數三次다녀온 地域 有志 몇분께 물

現代文明이 自然과 生態界의 均衡을 깨뜨려 人間의 生存 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어 보아도 그 이름조차 모르고 계시는 이가 大部分 임을 確認하였다. 따라서 옛 文獻과 村老의 証言等을 종합 正確한 案內図를 作成하여야 할 것이다.

독 번째는 文化 遺蹟 遺物 에 對한 발굴 調査事業이 活 發히 進行되도록 뒷받침 하 는 일이다.

寒溪寺址가 1984年 江原大 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발굴 복원되었고, 寒溪山域의연구 조사가 進行中에 있지만 하 루 속히 언제 누가 무엇 때문 에 축성했는지 규명 되어야 합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永矢庵圓 明庵等 수많은 암자티가 있고, 寒溪寺의 後身인 淵峴의 雲 興寺址가 또한 발굴 조사 되 어야겠다. 또한 각 사찰에 함 께 모셔져 있는 山神閣과 七 星閣의 由來에 對해서도 깊 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雪嶽에 얽힌 説話 傳説에 對한 수집 연구로, 自 古로 우리 조상으로 雪嶽이 라는 空間을 어떻게 숨쉬며 스처 지나 갔나를 照明해 보 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슬기 와 滋養으로 삼는 한편 詩人 墨客 高僧 道士의 足跡 연구 라 하겠다. 序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代代로 名士들의 왕래가 짓았다.

따라서 이분들의 발자취를 두루 살피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部分은 발굴 하여 整理 함으로써 雪嶽文化의 脈을 찾 아야 함 것이다.

하나 例를 든다면 우리 民族의 고유 思想이 風流 仙等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風流나 仙이 모두 雪嶽과 같은 名勝地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大勝瀑布 맞은편 바위에 새겨진 「九銀河」네글자는 晚年에 神仙이 되었다는 楊蓬藥의 筆이라 하고, 梅月堂의 金時習이 仙家의 한사람이 였을뿐 아니라 高僧 義체과 道詵이 모두 仙家 부류에 屬한다고 李能和의 朝鮮道教史에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雪嶽이 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더구나 臥飛仙 九仙 王女 十二仙女等名勝地의 이름이 仙字없이는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이로 미루어 보아도 우리 民

族의 잠재의식 속에 仙의 思想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을가를 알 수 있다고 하겠 다. 는

더구나 仙字 自体가 사람 人字와 외 山字로 이루어졌고, 그 思想의 핵심이 人間과 自 然의 調和에서 求함을 짐작 할 때, 이 仙의 現代的 意味 를 再照明해 보는 뜻에서도 깊이 연구해 볼 必要가 있으 리라 믿는다.

特히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現代文明이 自然과 生態 界의 均衡을 깨뜨려 人間의 生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生態學者들의 주장이고 보면, 自然을 사랑하고 그와의 調和속에 生의 意味를 찾으려 했던 우리 배달 고유의 仙 내지 風流思想을 탐구 再照明해 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네째로는 雪嶽民俗의 발굴 보존이다. 特히 內雪嶽에 많 이 自生하고 있는 祁上傳來 의 名藥 산삼에 얽힌 民俗을 今年 合江文化際에 발굴 재 현한 것은 크게 뜻 있는 일로 서, 이를 좀더 다듬어 無形文 化財化하는 항편, 이들 심마

**内雪嶽의 主人인 우리들이 이곳의 勝景과 文化유신을 우선 잘 알아야 산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며 ⁹⁹

니들의 은어와 用具 또한 산 삼의 實物(외닢부치에서 육구 만달에 이르기까지)을 영상 화 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진열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이다.

또한 山祭堂과 七星閣 山 神閣에 얽힌 民俗도 발굴하 여 再現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 列舉한 바와 같이 內雪嶽의 빼어난 自然과 이에 얽힌 산악文化를 多角的 으로 발굴 복원 정비하여 우 리들이 오늘을 사는 슬기와 滋養으로 삼는 한편, 觀光客 의 文化的 欲求에 부응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드린 나의 提言은 主로 이고장의 뜻있는 有志 기관 團体및 自 生詛織들이 하여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이 루어짐과 병행하여, 郡民들이 이러한 自然과 文化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이제 그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雪 嶽巡禮 郡民 登山大會다.

자주 가 보아야 무엇이 어 떻게 좋은지 알 수가 있고, 이 名山에 對하여 잘 알아야 이 山을 사랑하고 가꾸며 남에 게 소개하는 관광要員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음은 雪嶽文化 강연회이다. 사계에 권위있는 人士를 초청 자주 강연회를 열어 雪嶽山이 가지고 있는 文化條件들을 소상히 알아야 왜 이산이 神山이고 聖域인 것을 알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는 內雪嶽 名勝地에 對 한 寫眞作品 공모 전시회를 열 것이다.

이는 등산을 하며 직접 보지 못하는 郡民들이 간접的 으로 설악勝景에 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설악을 주제로 한 時調및 漢詩 백일장과 説話 傳議 민요 수집 발표회等, 郡民이 雪 嶽과 자주 接할 수 있는 기회 를 다양하게 마련하되, 이를 合江文化際의 일환으로 흡수 發展시켜 종국에는 內雪嶽祭 化 하여야 할 것이다.

4. 結言

雪嶽은 山中의 山이요, 天

下名勝이 즐비할 뿐 아니라 自古로 祖上이 남긴 有形 無 形의 文化遺産을 골 마다 간 직하고 있는 聖域으로, 이山 의 大部分을 管内에 가지고 있는 內雪嶽의 主人인 우리 인제 군민들이 그 所重 함을 再인식 하고 사랑하며 가꾸 어 가는 한편, 나아가 觀光要 員이 되어 우리의 所得과 直 結 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란 속담대로 內雪嶽의 無數한 絶景들을 찾아 꿰어 이를 內外에 소개하자! 거듭 강조하거니와 內雪嶽의 主 人인 우리들이 이곳의 勝景 과 文化유산을 우선 잘 알아 야, 이산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며, 이 산을 아끼고 사랑 하는 마음이 샘솟아야 이를 가꾸고 外部에 소개할 수 있 을 것이다.

관심을 갖자! 눈에 빛을 주어 바라보자! 遺跡을 爲始한 文化유산을 잘 소화시켜 우리들 마음 의 滋養으로 삼자! 雪嶽의 主人이여! 麟路의 郡民들이여!

地方文化媒體의 活動

◇ 文化暢達의 實現을 為하여 地方文化를 主導 하는 主体들의 參與와 努力이 함께 이루어져야 ◇



文化公報室長 金 顯 緒

民生苦 解決이 急先務로 여기던 그예전에 오늘을 豫見한 庶民은 그리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解決40年, 5.16革命 25年. 第 5共和國 出凡 5年 그동안 飛躍的인 經濟發展은 國民이 安定된 生活을 누리도록 되 었으며 大衆文化의 發展과 함 께 國民 모두 亨有할 수 있는 文化的 環境과 空間이 어느 程度 確保되면서 많은 사람 들이 文化生活을 榮爲하고자 하는 慾望이 漸增하고 있으 나 아직 地方住民의 慾求를 充足시키기에는 未洽함이 크 다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民族文化遺産의 効果的인 保存管理와 傳統文化를 繼承發展시켜 住民의 文化的 삶의 空間을 提供함이 地方文化媒體의 役割이라할 수 있겠다. 第5共和國國政指標中에 文化暢達이 强調되어 있고 第6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의 文化部門을 보면 위와 같은 側面에서國民이 期待하는바 크다고 할것이나 이의 實現을 爲하여地方文化를 主導하는 主體들의 參與와 努力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즈음하여 近間 麟蹄 郡에서 推進한 遺蹟地 整備 事業과 民俗資料蒐集 保存事 業은 住民의 文化意識을 높 이고 保存管理에 기여함이 높 이 評價되므로 그 事例를 要 約紹介한다.

「寒溪寺趾 發屈調査」

北面 寒溪 3 里 將帥臺正面 의 海拔 1,430 m의 鞍山을 병 풍처럼 뒤에 두고 중턱에 位 置한 寒溪寺趾는 創建年代와 歷史的 변천 過程이 名文이 나 碑石으로 傳하여지지 아 니하므로 그 理由를 正確히 알수 없으나 1985년 江原大 學校 博物館 調查團의 調查 書에 依하면 發屈作業時 나 타난 各種 기와 石造物들의 製作솜씨 形態를 分析하면 統 一新羅時代 初期에 製作되었 을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그 以後 高麗, 朝鮮朝 初期까지 名脈이 維持되었다 한다. 또 한 百遭寺에 소장된 史料中 萬海 韓龍雲의「乾鳳寺末寺 史蹟 | 等에 依하면 先是 1674 年 新羅 眞德王56年 丁末 慈 藏律師가 미륵 3位를 奉安하 고 寒溪寺라 칭찬후 수차에

**영약으로 알려진 山蔘은 이곳 심메마니 특유의 生活로 山神祝文, 山打令을 채집하여 記錄保存하였으며 **

걸쳐 災難으로 移轉하면서 현 재의 百潭寺 位置까지 移建 한 것으로 되어 있다.

寒溪寺 發屈過程에서 나타 난 遺物들은 現在 江原大學 校 博物館에 保管되어 있으 며 週邊에 흐트러졌던 石塔 은 原形대로 복원하여 옛날 의 아담한 모습으로 갖추었 고 境內도 잔디로 말끔히 整 備하여 管理하고 있다.

「寒溪山城 學術調査」

北面 寒溪 3里(玉女湯溪谷) 鞍山의 7部稜線에 位置한寒 溪山城은 新增「東國與地勝 鹽 | 麟蹄縣扁에 「古蹟寒溪山 古城石築周 62百7拾8尺 高 4尺 内有一井令率頽洛 |이 라 고 記錄되어 있으며 憲宗 9 年(1843)에 發刊된 麟蹄邑誌 에는「古蹟寒溪古城石築周 6,278尺 高 4 尺 内有二井令 則頽落 |이라고 規模가 記錄 되어 있을 뿐이다. 口傳에 依하면 寒溪山城은 新羅敬順 王이 築城하여 高句麗와 마 지막 對峙하였다하여 亡國의 恨을 반추하였다는 傳說이 有明하다.

現在 城의 中間으로 推定 되는 地點에는 길이 70 m, 폭 5 m, 높이 7~8 m의 完全한 形態의 城이 保存되어 있고 붕괴된 자취는 長長7km에 이 르고 있다.

郡에서는 금년도에 江原大學校 博物館에 山城의 學術調查를 의뢰하였으며 12월中에 한계산성調查報告書가 提出될 것이다. 이 城은 북괴와對峠하고 있는 우리 地域 住民의 護國精神의 산 教育場으로 活用함은 勿論 항구적인 保存管理方案을 講究할 것이다.

「麟蹄 뗏목아리랑 採集」

山이 많아 林産資源이 豊富한 麟蹄는 京仁地方의 木材 供給地로 交通이 不便하였던 그 옛날에 水路에 依하여 木村의 大量輸送手段으로 뗏목이 發達된 始源地이다.

交通의 발달과 댐等의 建設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뱃사공들의 애환이 서린 뗏목아리랑은 400里 물길따라 메아리첬을 것이다. 그아리랑이 뗏목과 함께 사라져가고 이제는 60~70노령의 옛사공들에 의해口傳되고있을 뿐이다.

郡은 이 뗏목아리랑을 採

集하여 記錄을 保存함은 勿論 1985年 第 3 回 江原道 民俗競演大會에 뗏목의 製作過程을 再現하여 영예의 최우수상을 시사한바 있다.

「심메마니」

1986年 第 4 回 江原道民俗 競演大會에 本郡 特有의 심메 마니 生活史와 심메마니의 山 打령을 出演한바 있다.

영약으로 알려진 산삼은 이 곳 심메마니 특유의 生活로서 入山過程 山神에 드리는 山神祝文,山蔘을 찾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큰 山蔘을 찾도록 念願하며 서로의 連絡手段으로 부르는 山打令 을채집하여 記錄은 保存하도록하였다.

以上과 같이 史蹟地의 保存管理나 鄉土民俗資料의 수집 기록관리는 地方文化媒體의 役割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地方文化才求心體가되어 住民의 團合機會 造成은勿論 矜持와 가치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민는다.



麟蹄は! 永遠하라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살다보니 情이 들었고 가꾸다 보니 이제는 그 어느곳 보다도 살기좋은 樂園이 되었다◇

> 최 병 헌 인제군 行政係長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 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을 外 地에 나가서 가끔 듣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自存心이傷 하는 것을 억지로 自制하곤 했다.

이 말은 收復當時 麟蹄가 戰爭으로 因하여 焦土化 됨 狀態에서 개떡같은 판자집만 다닥다닥 들어섰을 때 이곳 에 잠간 居住를 했거나 日時 거쳐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 진 말로서 한마디로 사람 살 洞里가 못된다는 揶揄의 말 이다. 사실 收復當時는 우리 를 自身이 생각해도 一常生 活이 술과 도박,폭행의 연속 이었고, 未來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만 모여사는 詛呪받은 땅으로만 생각되었다. 이를 立證이라 도 하듯 每年 人口는 減少되 어 '66年度 만 해도 64,000餘 名이던 것이 現在는 5萬도 채 못된다. 그러나 지금 이 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결 코 이땅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리려해도 너무 억울해서 못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을 흘리면서 사격장의 폭탄

껍질을 주워 팔고, 질경이를 뜯고. 칡뿌리를 파 먹으면서 손가락 마디마다 피멍울이 서 도록 일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이 실 감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살다보니 情이 들 었고, 가꾸다 보니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좋은 樂 園이 되었다. 砲火로 민둥산 이 되었던 곳에는 樹林이 울 창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草 生植物이 자라 꽃을 피우고 있다. 새들은 저마다 목청을 돋구어 노래하고 사라졌던 철 새들도 찾아오곤 한다. 못살 겠다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철 새처럼 하나 둘 다시 돌아와 새로운 둥지를 틀어 지난해 부터는 人口도 늘어나고 있 고, 道路舗裝率은 55%로, 全 國平均을 上廻하고(國道鋪裝 率 100%). 上水道 普及率 84%, 住宅普及 91%, 農村 電化率 100%이고, 文化水準 面에서는 電話 普及率이 46% 로 2家口當 1台, 自家用이 114名當 1台,新聞 普及은 10 家口當 1枚로 比較的 富의 生活을 누리고 있다.特히 世 界的으로 脚光을 받고 있는 麟路는 雪嶽山 國立公園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行 樂客의 취향변화로 대다수가 山과 많은 溪谷의 絕景에 매 료되어 날로 來訪客이 急增 하고 있어 未來가 約束된 땅 으로 2,000年代의 榮光은 모 름지기 麟路의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본다.

얼마전 某日刊誌에 連載小 說을 執筆하고 있는 李 ○○ 는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 해서 못살겠다는 元通에서 하 루에 차를 50잔이나 마셨다." 는 말로 다방 아가씨들이 손 님에게 賣上을 올리고 있다 고 表現했다. 李先生(?) 님 께서 元通에 와서 실제보고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글을 썼 는지는 모르겠으나 地域感情 을 일으키게 할 소질이 있다 는 것을 알고나 썼는지 모르 겠다. 사내라고 아가씨들에 게 生色내려고 차 몇잔 사주 고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나 하는 정도라면 麟蹄에 와서 차 한 잔 안마셔 줘도 우리는 좋을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 렇게 비겁하고 졸열하게 살 지 않는다. 過去에 어려웠던 날들을 생각해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俗談같이 어 려운 이웃을 서로돕고. 찾아 오는 손님에게는 밥 한술 따 스하게 대접하는 重厚한 인 심도 가지고 있다.

누군가 麟蹄에 와서 보라.

그리고 말해 보라. "이제야 麟蹄 왔는데 원통해서 어떻게 가나?"하면서 늦게 온것을 떠나기를 아쉬워 하리라. 그래서 麟蹄를 사랑하는 나는"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다"는 말은 "麟蹄를 떠나가면 또 언제나 오나 원통해서 못가겠네."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다. 5萬 郡民이여! 이제 우리는 未來가約束된 땅에서 산다는 자랑과 秆持를 갖고 미칠정도로 麟蹄를 사랑하자.

麟蹄여!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어 묻혀야 할 麟蹄여!

永遠하라!

□ 風恬浪静中에 見人生之眞境하고 味淡聲希處에 識心体之本然 이니라

- 채근담 중에서 -





우리고장 麟蹄



麟蹄郡繁榮會長 崔 恒 奎

예전엔 麟蹄를 산골이라 했 다. 全國에서 제일 넓은 郡이지 막 全面積의 90%가 林野로 耕 地面積은 4.5%에 不過하여 한 때 山때문에 發展이 안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 늘에 와서는 山에 對한 視覺이 엄청나게 變한 것이다. 오늘날 現代社會가 複雜多樣한 産業計 會로 바뀌어 가면서 人間은 本能 的으로 自然에 對한 渴求를 强 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金剛山에 비기는 아름다운 雪嶽 山의 60%가 우리 麟蹄땅이다. 百潭寺를 中心으로 하는 寒溪 쉽에서 馬登嶺으로 이어지는 西 部一帶의 內雪嶽을 말한다. 內 雪嶽의 名山峻峰과 아름다운 溪 谷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觀 光地로 탈바꿈한 것이다. 瑞和 江, 寒溪川, 內鱗川, 合江 周 邊의 秀麗한 自然風景도 일품 이다.

不過 10數年前까지도 이곳 山間 마을 사람들의서울 나들이는 큰 자랑거리였으며 周圍사람들의 부러움이었으나 지금은 完全히 뒤바뀌어 都市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이 큰 바램이 된 것이다. 特히우리 고장은 內雪 嶽의 太古의 調和를 그대로 간직한 채 現代文明에 찌든 우리들을 自然 그대로 淨化하는 곳이기도 하다. 經濟가發展하고 國

民所得이 增加함에따라 國民의 休養,保健 및 情緒 生活 向上의 패턴이 많이 變한 것이다.오늘 날의 觀光은 觀光客 기호에 따 라 다르겠으나 그 主流는 自然 을 찾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고장을 찾는 觀光客이 每年 增 加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自然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柱 路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고 後 期 産業社會의 未來象을 간직한 寶庫임에 틀림 없으니 우리 麟蹄 땅에 希望과 未來가 열리고 있 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고장의 自然景觀은 麟蹄의 未來를 約 束하는 所重한 收入 資源이기에 우리는 이를 잘 保存하여 훼손 되지 않은 狀態로 後孫에게 물 려 줘야 한다. 地域經濟 活性化 를 爲한 앞으로의 觀光施設은 아름답고 貴重한 自然資源을 最 大限 保存하면서 理想的이고 品位있는 開發을 잘 調和시켜 가꾸어 나가야 할것이다. 現在 外雪嶽이 먼저 開發돼서 內雪 嶽 開發이 뒤졌다고 하겠으나 오늘의 時點에서 보면 오히려多 幸하다고 생각한다. 開發이 完 成된 地域보다 더 計劃的인 開 發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天惠 의 自然條件을 가지고 있는 麟 蹄의 立場에서 볼때 開發問題 를 너무 조급히 서두를 必要는 없으며 短期 開發 側面보다 長期

開發 쪽에 關心을 더 기울여야 한다. 지난날 開發 第一의 時代 에 저지른 획일적이고 단조로 운 施設等 施行錯誤가 있었던 地域과 달리 우리麟蹄는 100年 을 내다보는 未來指向的 開發 이 必要하며 施設은 우리나라 固有의 傳統樣式을 主軸으로 해 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人口가 西紀 2001年에 가서는 6,000萬 名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外貨 를 벌어들이지 않고서는 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地域 觀光 施設은 內國人 即 國民 觀光 爲主의 施設보다는 外國人 觀光客을 誘致할 수 있는 施設 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自然을 保 護하는 側面에서 施設은 最小 限度로 그쳐야 하고 利用者가 自 然을 滿喫할 수 있어야 한다.여 러가지 便官 施設도 重要하겠으 나 都市에서나 볼 수 있는 一流 호텔이나 요란한 "디스코텍"은 아마도 必要치 않을 것이다. 그 저 조용한 自然環境을 背景으 로 한 休養 活動을 하고 自 然을 鑑賞하는데 必要한것이면 足한 것이다. 우리 麟蹄 땅에 밝 은 未來는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智 慧를 모아 우리나라 觀光의 中 心圈으로 位置를 굳히도록 努 力하여야겠다.



内雪嶽 禮讚

제주도 보다도 넓은 1951 km중 91% 가 山林으로 山姿 秀麗한 自然景觀을 뽐내고 있는 이곳· ·!

옛부터 아름다운 自然과 · 차한 인심의 고장으로 굽이 굽이 그림같은 絶景이 갖가 지 傳說과 재미있는 説話로 가득차 있다.

봄의 철쭉. 여름의 계곡.가 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으로 四季節을 모두 즐길 수 있는 天惠의 景觀을 자랑하고 있 다.

雪嶽山을 연결하는 유일한 소양강 뱃길 水上觀光은 인 제의 진입관문으로 꿈의 旅 路라고 할만큼 감탄을 자아 내게 하다.

玉女湯 將帥台 大勝瀑布 小勝瀑布 寒溪嶺을 비롯해서 鳳頂庵 馬登嶺 大青峯 十二 仙女湯등은 우리고장의 자랑 이며, 또한 피아시 계곡은 많 은 避暑人波가 몰려들어 海 水浴場을 彷彿케하고 있는 곳이다.

군내 어느곳을 가나 관광 지가 아닌 곳이 없다.

제한된 지면에다 어찌 명 승고적과 그 유래를 다 설명 함 수 있으랴!



徐 忠 奎 麟蹄郡 觀光係長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했으 니 한 번 와서 보지 않은 이 는 내설악을 말할 수 없으리 라!

산새들이 지저귀는 動物들 의 樂園, 內雪嶽!

原色丹 이 물결을 이룰 때 면 山河의 秘 이 極致에 달 해 전국 각지의 山사나이들 이 모여들어 歎聲을 자아내 며 골짜기마다 人山人海를 이룬다.

빼어난 景觀 맑은空氣, 깨 끗한 溪谷물이 調和를 이루 는 韓國 第1의 神秘의 고장 인제를 한 번 와 본 이라면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교통이 편리해서 어느 곳이나 시내버스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시골인심이 후하여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아주 친절히 안내해 주고

특히, 南男北女라고 했듯이 처녀들의 마음씨가 비단결 같이 곱고 자태가 달덩이 같 이 고와 深山幽谷 秀들의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

인제군민들의 단결된 意志 속에서 나날이 발돋움 하고 있는 이 고장에,활기가 넘치 고 있다.

서슴없이 권하노니,韓國第 一의 秘 内雪嶽을 보기위 해 山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산악인이 되라!

쌓였던 피로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생활의 활력을 위해 맑은 계곡을 찾아 · · 에 避署를 다녀왔노라고 떳떳하게 말하라!

날로 脚光받고 있는 國立 公園內雪嶽은 우리 모두의 것 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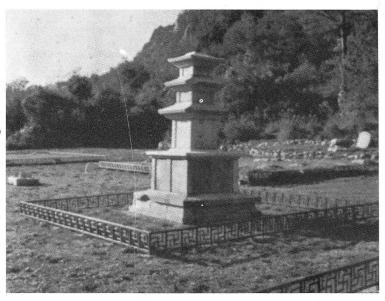
또한 汚染되지 않은 맑은 大自然은 子孫萬代에 물려줄 우리들 모두의 유일한 財産 인 것이다.

향토유적탐방 특 집 화 보 향토유적탐방

寒 溪 寺 址

(강원도 기념물 제50호)

신라 진덕여왕 원년 (647년)에 慈蔵이 창 건. 그후 수차의 화재 로 이전하게 된 백담 사의 전신사찰로서 19 84년 강원대학교 박물 관 조사팀에 의해 발굴 복원되었으며, 한계령 을 오르는 장수대 도 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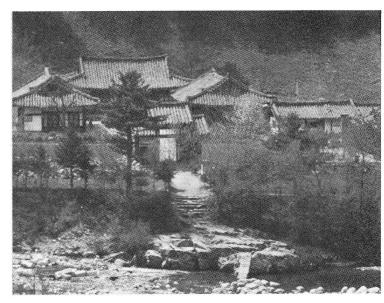


寒溪山城

(강원도 기념물 제17호)

新羅 敬順王叫 築城 되어 新羅와 高句麗軍 이 마지막 抗戰했던 곳 으로 유명하다.

이 城은 玉女盪 골짜기 를 지나 鞍山의 7부 稜線까지 연결돼 城의 의 자취만 추적해도 7. km에 이른다.



百潭寺

西紀 647年(眞德女 王 元年) 에 慈蔵律師 에 의해 創建한 古刹 로 西紀 1915年 까지 160여회의 火災가 發 生하였으며 西紀 1919 年 인공법사가 現 百潭 寺를 重建하였다. 百潭 寺는 内雪嶽 第一의 古 刹이며 특히 3.1 運動 때 民族代表이신 萬海 韓龍雲 禪師가 修道를 하고 "님의 침묵"을 執 筆한 곳으로 有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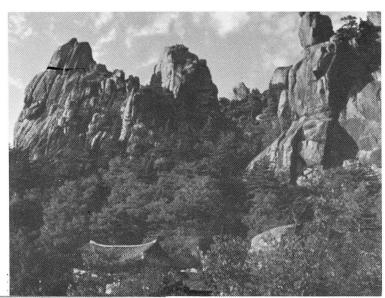
五歳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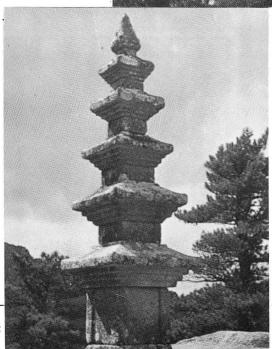
서기 644년 (선덕여 왕 13년)에 慈蔵이 건 립하였으며 다섯살난 童子가 佛法에 悟得通 達하였다고 하여 五歲 庵이라 하였다.



鳳頂庵

전국의 사찰 및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 치하고 있다. (해발 1,24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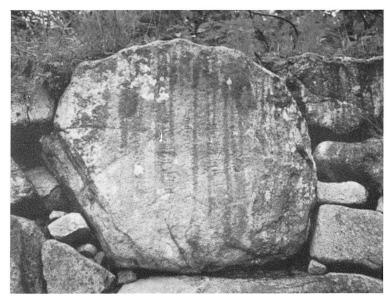




5 층석가사리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慈蔵이 창건당시 암 자터를 고를때 봉황 한 마리가 날아와 잡아주 었다고 하여 봉정암이 라고 한다.

향토유적탐방 특 집 화 보 향토유적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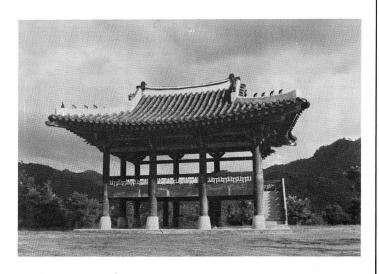


黄膓禁標

朝鮮朝 중엽에 설치 한 것으로 내설악 한 계리 鞍山절터에 가로 25cm 세로 40cm의 화 강석에「黄膓禁山 自 西古寒溪至東界二十里 라고 씌여 있다.

「소나무 자원을 보 호하기 위해 서쪽계곡 으로부터 동쪽 20리마 을까지 나무를 베지 못 한다」는 標石으로 설 악산 일대에서는 유일 하게 발견된것이다.

합 강 정



문화사업화보



86 . 5, 30일 이제균 선생 초청 청소년 문화 강좌



86.11.8일 효자 효부 수상자



86.10.28일 박석균 선생 초청 문화강좌(논단)



68.8.12일 남면 노인회에 농악기 전수

문화사업화보



86. 성화봉송맞이 축제행사(인제 뗏목놀이)



86. 7. 25 문화유적 순례 출발시



86. 5. 8일 어버이날 행사



86. 향토사료수집품(민속품)

● 특 별 기 고

북괴의 흉계를 규탄하는 우리의 자세



이 제 균 북면정화위원장

우리는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이루어 졌을 때 그 감격적인 감정을 필설로 형용할수 없었다.

동토의 왕국으로 불리워지는 북한이 그 어떤 폐쇄적인 정치체제라고 하더라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대단하였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쪽 월남 가족들이고향을 방문하려고 희열에넘쳐 판문점을 향해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TV에 비칠때온 국민의 마음은 큰 희망으로 설레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작만하여놓은 문전옥답과 오손도손 모여살던 일가친척들을 뒤에 두고 월남할 때 하나같이 몇개월, 길어야 일년이면 재회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잃었던 고향땅을 근 40개 성상이 지난 지금에야 찾아 가 볼 수 있다는 벅찬 감격 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웠다.

20대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 타향에서 백발이 성 성하여지는 서글픔이란 월남 한 실향민이 아니고는 실감 증기 어려울 것이다.

> 소슬 추풍은 자취없이 사 라지고

창밖에 함박눈이 고요히 나릴 때

아아 그대는 평안히 있 는가

오늘도 북쪽 허공을 바 라보며 생각하노니

인생이 가는 길은 그 어 디메며

나의 찾는 그대는 왜 대 답이 없는가

오호라 얽어매진 인생의 행과 불행이여

이와같은 초졸한 시를 읊 어보며 눈물지든일이 얼마인 지 그 회수를 헤아릴 수 없 다. 이렇게 그리던 고향을 찾을 수 있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치면서 일가친척들과 친지 들의 영상을 그려보며 이름 들을 불러 보았다.

그러나 너무 오랜세월이라 이름들도 잊혀지고 영상도 회미하여져 백지에 살던 동 리의 지적도를 그려놓고 한 집 한 집 손으로 짚어 가며 떠나올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일가친척들은 반동,지주.종 교분자.월남반동가족. 등의 죄목으로 숙청되여 그곳에 살고 있지 않겠지만 그들의 생사나 확인하고 조상들의 뼈가 묻혔을 변하지 않은 고 향 땅의 산하를 밟아 볼수 있 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 로 기대하였었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당치않은 이유(한미합동군사훈련)를 들어 남북회담 및 남북내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재회의 시간을 같은 민족적 양심에서기대하여왔다.

그런데 북과의 금강산댐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청천 벼락과 같은 일이 아닐수 없 다. 나는 이 금강산댐으로 인 한 우리의 파해상황에 대하 역는 전문가들의 발표로 주 지의 사실이기에 설명하지 않지만 북한의 많은 지역을 답사하여 알고있는 나는 그들의 흉계를 규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북한은 전역에 걸쳐 수리시설이나 수력발전 시설 에는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은 높고 골이 깊으며 주민이 별로 살지 않는 계곡 이 허다하므로 전답이나 주 민의 생계에 많은 피해없이 도 댐을 건설하여 막대한 전 력을 생산할 수있는 곳이 곳 곳에 산재해 있다.

몇곳을 소개한다면 현재 발 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진 강발전소는 1935년 5월에 착공하여 38년 7월에 완공 하였는데 함경남도 장진군 마 대산(1745M)과 동백산(20 96M) 소백산(2184M) 등지 에서 발원하고 장진군 중앙 을 통과하여 부전강과 합류 하여 삼수군을 거쳐 압록강 으로 유입되는 장진강에 설 치한 발전소이다 발원지에서 흘러 표고 1100 M의 개마고 원으로 흘러 40 KM 하루인 갈전리 협곡에 높이 48M의 중력식댐을 구축하여 저수량 10억 6000만톤의 거대한 인 공호를 만들고 이에 담긴물 을 역류시켜 황초령밑을 24 KM의 터널로 도수 동해로 유입되는 성천강지류인 흑림 강 골짜기로 떨어뜨려 낙차 를 이용하여 유역변경식으로 네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였 다. 이곳의 제1발전소 최대

출력은 14만 4000KW제 2는 12만 4000KW. 제 3은 4만 6 000 KW 제 4는 4만 KW를 생 산하여 총출력 35만 4,000K W의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 다. 그리고 제 2장진호 (일명 양림호)는 제일 장진호댐이 있는 갈전리에서 다시 하류 로 50KM에 위치한 이상리 에 장진강 본류와 지류인 오 만동강의 합류지점에 댐을막 아서 인공호를 만들었다. 이 대우 1937년에 착공하여 19 41년에 완공하였는데 제1장 진호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 호수의 물은 동문거리에 있 는 취수구를 거쳐 양림산맥 밑을 30KM의 터널로 도수 하여 평안북도 강계군을거쳐 압록강으로 유입되는 독로강 으로 인수하여 두개의 강계 발전소 독로발전소를 가동하 하여 30만KW를 생산하고있 다. 이 두 곳의 발전소를 시 설 보완하기만 한다면 현재 금강산댐의 비용에 삼분의 일 만으로도 금강산댐의 발전량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 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뿐아 니라 청전강(평북)상류 허천 강(함남)등은 문외한의 상식 으로라도 천혜의 조건을 갖 고 있음을 현지를 답사한사 람이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대동강 상류 양덕맹산 지역과 예성강상류 곡산등지 에 수리시설이나 발전소를 건 설한다면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북괴가그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는 불리한지역을 선정하여금 강산댐을 구축하고 또 시설비에비해 극히 적은 발전량을 생산하겠다는 의도는 다른 목적이 아니 흉계라는 것은 삼척동자의 상식인 것이다.지난번 북한으로부터 받은 수재물자에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낙후된 물자에서 보는 바대로 북한의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니다.

외신이이미 발표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 파산국으로 인 정반은 처지에서 이와같은 시 설은 도약하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88 올림픽을 방해하 려는 비인도적 행위로 인정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 다.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40년을 지나면서 두 체제를 유지해온 사회적 구조가 새로 형성되고 차츰 고정화 되고있는데서 남북한의 이질화 문제를 몹시 우려하였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개인과 집단이따로 존재하고 있으며집단은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개인의집단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개인의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모든 사람은 한 개체로서존중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헌법 49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민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야하기 때문에 개체의 존재는 전혀 부인되고 개체(개인)는 오직 전체에 의해서 의사가 표현되고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의 지 위나 독립성을 갖을 수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있다.

이와같이 이질적으로 변해 가는 정치체제에 크게 우려 하면서도 남과 북은 엄연한 단일민족이고 한 핏줄이라는 사실에서 온갖 피해를 감수 하면서도 한가닥 민족양심으 로 되돌아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중부권의 천여만 동족을 홍수로 일시에 살해하려는 이번의 흉계로 인하여 송두리째 무너져내렸다는 것은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리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체제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존과 국토보존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 집안의 형제가 피투성 이가 되도록 싸우다가도 외 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 게되면 이제까지 싸우던 형 제가 곧 힘을 합하여 적을 물 리친다는 옛말과 같이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 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하 겠다.

이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 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총화 단결로 결속하고 집약되 마 음가짐뿐일 것이다. 작금에 일어나는 政治的 불안과 共 産주의 행동강령을 글에서보 고 북한 정치체제를 동경하여 이적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 면서도 영웅심리에 사로잡힌 일부 학생들의 행동이 저윽 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단합된 마음으로 「국민화합 의 장 마련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단결만이 있을 뿐이 다.

지금 대응댐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성금이 요원에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저가고 있다.

모처럼의 이 집약된 마음 가짐을 더욱 공고히하여 저들 북괴가 금강산댐 구축을 포 기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 올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것 이다.

|특 별 기 고

東南亞 5個國의

文化에 對한 小考

序言

나는 年前 東南亞 5個國을 巡訪할 機會가 있어 많은 것 을 보고 느꼈다.

오늘날과 같은 國際化 時代에 눈여겨 關心을 둔 것은 우리나라와 文化的 社會的 背景 類似한 5個 友邦國의 教育 現況과 社會的 文化的 現況이었다.

나는 이러한 諸般 現況을 살핌으로써 現場教育改善의 方案을 模索하고 또한 그 나 라 國民들의 삶의 現場과 國 家發展의 努力 文化的 傳統 과 特性等을 把握 하는데도 觀心을 기울였다. 關

어제의 새로운 知識도 오늘에는 常識化하는 急變하는 國際社會 속에서 教育이야말로 國家發展의 原動力이며 祖 國 近代化의 中樞的 機能이 기에 나에게 負荷된 時代的 召命意識을 痛感하면서 巡訪 國家를 通하여 自身을 再照 明하고 主體性을 確立하는데 努力하였다.

紙面關係上 여기엔 文化面 만이라도 실어 多少나마 參考 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 하다

1. 中國文化

1. 國立故宮博物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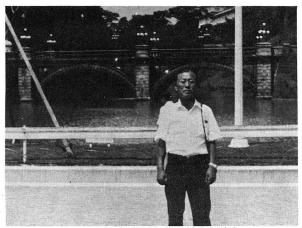
孫文先生 100周忌 記念으로 建立(中華民國 40年)된博物館인데 先史時代부터 始作된 陶磁器,工藝品,書藝,彫刻品等으로 20餘萬點이 있는데 博物館 事情에 依하여 10,000餘點式 陳列 3個月마다 새로운것을 바꿔 陳列한다.해도 20年이 걸려야 한다고 한다. 作品 하나하나의 精巧性은 참으로 大陸文化의精髓가 아닐 수 있다.

2. 中正記念館

中正은 蔣介石 總統의 號이다. 中正의 業蹟을 높이기 위해 흰大理石으로 內·外部 를 단장한 巨大한 記念館이



金 柄 喆 上南中學校長



○ 日本 皇居 二重橋 앞에서 필자

다.

內部에는 蔣介石 總統의 一代記를 그림 사진 혹은 遺物로 展示하여 後孫 들에게 산 教育場으로 活用하고 있 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歷 史의 숨결과 民族的 矜持를 3.大理石 資源

臺灣 花蓮地方의 모든 山이 모두 大理石으로 臺灣 人口가 24時間 現在의 設備施設로서 쉬지 않고 채굴을 해도 100年이 걸린다는 무진장의 寶庫, 奇岩絕壁의 아름다운 景致 또한 무진장의 觀光資源이다.

4. 烏來村 및 阿美文化村 (高山族)

臺北近郊 烏來村의 民俗村 과 臺灣의 東西로 관통한 타 로코 大理石 계곡의 험준한 길이 끝나고 平地가 있는곳 에 阿美高山族 文化村이 있 다. 現代文明 속에서도 그들 의 傳統文化를 계승발전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가 락과 리듬, 그리고 몸짓은 우 리의 固有 情緒와 同質의 것 이 있음도 함께 생각되었다. 5. 實質을 追求하는 國民性 市街의 建物塗色은 退色된 그대로이며 原色을 많이 썼다. 거리의 여자들의 옷 차림은 우리나라에서 10餘年前 流行 되었던 것같고 無表情하면서 도 餘裕만만한 大陸性 氣質 이 그대로 나타난다. 道路 및 一般公園은 잘 다듬어져 있으 나 오토바이와 行商人이 人 道를 메워 거리秩序 意識이 特異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Ⅱ. 泰國의 文化

1. 泰國民俗村 (Rose Garden)

우리나라의 龍仁民俗村보 다 規模는 작으나 열대식물 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호수 와 공연장이 있다.

공연내용은 古典音樂 무용 킥복싱 닭싸움 武藝 固有結 婚式等 다채롭게 興味 위주 의 공연과 動物들(코끼리)의 쇼까지 곁들여 泰國 固有의 民俗을 짧은 時間內에 볼 수 있었다.

2. 水上市場 (Floating Market)

메콩江 支流 차오파이어江 濁流를 티크나무로 만든 배로 달리면 江上兩岸에 무성한 야자 바나나 숲이 우거졌고 泰國固有의 家屋과 빗물항아리가 자주 눈에 띄었으며 江을 따라 각종 일용잡화土産品을 파는 商店들이 있었다. 더러운 下水물과 같은 江물은 泰國의 觀光地는 海上 交通路이며 海上市場과水路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강물에 쌀을 씻고 빨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헤엄도 친다고 한다. 그래서 강물을 손에 떠보니 多少 맑게 보였 다.

3. 왓트아로寺院(새벽사원) 약 190年前 라마1世王이 建立했다고 하는 아론寺院은 캄보디아 建築樣式으로 만들 어졌다. 寺院 中央에는 約60 m의 雄裝한 탑이 있고 그 주 위의 4개의 탑이 조화를 이 루고 있다.

이나라 곳곳에는寺院이눈 에 띄며 官廳 앞에는 반드시 佛像이 있다. 2千年동안 佛 教의 나라로 散在한 古蹟 大 部分이 佛教文化의 精髓로서 戰爭없이 그대로 保全되어 있 었다.

4. 王宮과 에메랄드 寺院

王宮은 王朝의 즉위場,御前會議場,迎賓館等 웅장한古宮이 있고 그 옆에는 黃金 550kg으로 만든 世界에서 제일 큰 黃金佛像이 있는 에메랄드寺院이다. 寺院内 왓부라게오 부처님은 에메랄드로되어 있으며 境内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세계 三大名物의 하나인 앙크로욑寺院 모형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5. 거리의 表情

이곳 거리는 밤 8시만 되면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肉重한 철문이 商店마다 드리워진다.

車型은 가지各色이나 거의 가 日製다. 이 나라 경제活 動의 80%가 日人이 차지한 다 하니 日人의 商術이 무서 울 정도다 住宅街의 집들도 가지각색 貧富의 차가 甚한 것으로 집작되었다.

6. 水上家屋과 陸橋

늪위의 水上家屋 이 나라 서민층의 一部를 엿볼수 있 다. 우리나라 陸橋의 型을 따 서 방콕 市内에 5個所에 설 치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 고 보니 반갑고 기뻤다 (70年 代 우리의 새마을運動을 배 워가서 建立).

Ⅲ. 싱가폴(SINGAPORE) 의 文化

1. 거리질서

거리는 질서정연하고 한가 롭다. 휴지 한 조각 없는 거 리며 산뜻하고 쾌적하다. BUS·TAXI內에서 담배를 피 우면250 \$ 벌금(SINGAPORE \$ 500). 그러나 아직 낸 사람 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만큼 이 나라 國民은 질서 를 生活化하고 自然을 가꿀 줄 안다.

2. 싱가폴의 술 · 담배

國民所得은 日本에 미치지 못하나 실지로 사는데는 이 나라가 日本보다 실속이 났 다고 한다. 그러나 술과 담 배는 世界에서도 가장 비싼 나라다. 거리에 술집과 茶房 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다

3. 센토사島(Santosa Island)

마운트 훼一바(Mount Faber 높이 500 Feet) 동산에 올라 가면 市街地가 한 눈에 보인 다. 이 高台에서 센토사島까 지 全長 1.8km의 케이블카— 가 設置되어 있다.

이 섬에는 戰爭 遺物館이 있고 世界 2 次大戰時 日本이 占領해서 山下將軍이 聯合軍 으로부터 降伏을 받은 곳이다. 센토사ー란 격전이란 뜻이며 2 차전終戰時에는 日本軍이 降伏한 곳이기도 하다.

4. 國立植物園

원래 전국토가 공원 같이 숲에 싸여있는 열대도시이지 만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珍奇 한 植物 3,000餘種이 잘 가 꾸어져 있다. 아열대식물 중 에는 600年生 Ficus나무를 비 롯하여 동양난과 서양난이 무 수히 많았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庭園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作品으로 선정된 동물형 정원수는 人間의 재주가 끝이 없음을 말해 주었다.

또한 이 植物園은 어린이들의 現場學習場으로 活用되고 있었다.

5. 쥬롱 새공원(Jurong Bird Show)

세계 여러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새종류)을 한곳에 모아 기르고 있었다. 좁은 계곡을 이용하여 공작과 새들이 마음껏 活動할 수 있게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시원한 人工瀑布를 만들어 새들의 樂園을 만들어 주었다.

6. 싱가폴의 三大자랑

첫째, 거리가 깨끗하다.둘째 물이 깨끗하다(말레이지아에서 물을 가져다가 淨水해서 다시 그 나라에서 판다고하다).

셋째, 公職社會가 깨끗하다. 公務員의 不正腐敗가 없는 地上樂園같은 田園都市國家다.

Ⅳ. 홍콩(HONGKONG)의 文化

1. 航空・海上交通의 經由地

홍콩島와 九龍半島를 包含해서 香港이라 하는데 1939年 1次世界大戰後 英國이引 문화여 現在 英聯邦國으로 人口는 490萬인데 실제인구는 550萬~590萬(98%는 中國人이다. 僑胞數는 2,000名이다. 東南亞地域의 唯一한 國際自由貿易港으로서 航空便과 海上交通의 中心地이며 觀光收入이 全體收入의 15%인 55億弗로 觀光客은 年200萬程度다.

2層 BUS가 퍽 인상적이 며 九龍半島와 香港을 연결 하는 東光海底터널은 1975年 준공되었는데 全長 3.5 km로 1日 平均收入이 20萬弗로 준공 3年만에 施工費를 다 回收했다하니 얼마나 많은 自 動車가 이 터널을 通過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陸地에 사는 사람과 海上의 배에서 사는 사람이 區分되어 있고 原住民은 아바딩族으로 海上 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의 모 든 日常生活이 그곳 船上에 서 이루어지고 海上 洞事務 所의 船舶은 붉은 旗를 달고 있었다.

特異한 風俗은 結婚時 新 即側에서 新婦側에 많은 몸값 을 支拂하는 것이고 共同墓 地가 계단으로 있어 좁은 땅 을 最大限으로 活用하고 있 었다. 이름있는 觀光地는 에 버딘만, 빅토리아봉, 타이거 밤 공원 등이다.

V. 日本의 文化

1. 大阪城 天守閣

大阪城은 豊臣秀吉이 1583 年부터 數年間 創建하였는데 1615年 兵火로 燒失되어 1620 年 德川幕府時代 10年 大工事 로 再建하였으나 1665年 다시 燒失, 本舘인 天守閣은 1931 年(昭和6年)에 再建된 것이 며 五層九階로 되어 있다. 主 로 豊臣秀吉의 遺物이 陳列 되어 있어 壬辰倭亂을 다시 연상케 하였다. 많은 遺物中 秀吉이가 各나라의 占領地에 서 强制로 鑛權을 장악하여 많은 金을 수집하여 만들었 다는 투구 모양의 物件은 그 의 약탈 근성을 그대로 나타 내고 있는듯 했다.

天守閣 周邊에는 秀吉이가 마셨던 우물인 金明水井戸와 明治 大正時代에 正午를 알 리는 號胞가 있고 城안에는 大阪縣 博物館도 있다.

2. 二條觀宮(國寶)

德川家의 命에 依하여 奉 行板創腸重이 1603年 築城, 다시 1962年 三代 將軍 家光 때 增築 33室 明治 17年 觀宮 大政奉還한子 桃山時辯의 壁 畫가 있다.

3. 平安神宮

祭神 第50代 板武天皇,第 121代 孝明天皇의 神宮으로 昭和 15年 改築 神殿은 ユ當 時의 화려한 건축양식이며 神苑은 3萬m²의 넓이로 明治 時代의 代表的 庭園으로 日本 名勝地로 有名하다.

4. 三十三間堂

1164年 後自河上皇에 依해 創建 1249年 燒失, 1266年 俊 嵯峨上皇에 依해 再建, 柱間의 數가 33이 되는 長大한堂이 있고 本堂의 11面 觀坐像을 中心으로 南北에 各各 500體의 等身大의 立像이 있어 1,101個의 千手觀音像은 이곳의 名物이다. 33間堂은 日本 美術史上 最高의 水準이며 姿藪仙人의 像은 像高 155.2cm로 이곳의 名物이다. 5. 東大寺

지금부터 1200餘年前 741 (天平 13年)에 聖武天皇이 佛 國土를 이 땅에 實現하기 위 하여 良辯, 行基, 姿羅門이 라는 名僧들의 協力에 依해 서 完成된 것이다(百濟의 後 裔)

옛날 總國分寺로建立된大寺로 現在는 華嚴宗의 大本山이다. 世界第一의 木造建築, 世界最大의 金銅佛像이 있다(높이 16m).

國寶가 30餘點, 重要文化 財만도 110點이 있다. 절入口의 南大門은 1199年에 建立 되어 日本에서 제일 오래 됐고, 中國 宋나라의 건축양식이고 木刻天立像등 행지보살과 양지보살은 우리나라 百濟사람이 建立하였다함. 또한 東大寺 附近 泰良公園 에는 사슴 100餘頭가 放牧되고 있 다.

6. 金閣寺

1637年 足利義滿과 西園寺家의 北山蔣터에 세운 臨濟宗의 麗苑寺와 本名은 金利展이며苑池에 臨하는 3層樓는 昭和 30年 10月에 再建한 것이라 하며 주변 조경과수목의 정리 단장이 정결하여 오랫동안 발을 멈추게 한다.

7. 大湧谷

籍根火山, 噴氣孔 附近은 亞黃酸가스가 코를 찌르고 草 木은 枯死되고 岩石은 風化 되어 처참한 風景이다. 빗속 에서도 유람선을 타고 보는 自然湖水 주변은 壯觀은 實 로 箱根觀光의 絕景의 하나 며 名物은 가스 噴出口에서 익힌 검은 달걀이다.

8. 東京타워 및 皇居

東京타워는 높이 333 m의 거대한 철탑으로 15層 높이까지 엘리베이터로 觀光客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안내원의 가슴에 붙은 800萬 觀光記念이란 記念휘장은 이탑의有名度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전망대에는 각종 부대시설이되어 있었으며 도쿄 시내를 조망할 수있는 망원경 시설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대함에 비해 조형미는 별로 찾을수 없었다.

皇居는 日本天皇이 살고있

는 곳으로 주변이 잘 정비되어 정결함을 느끼게 했으며 600年前 天皇의 반대파를 물리치고 적극 보필한 楠木正茂의 기마銅像이 인상적이었다.

9. 共同墓地

日本人은 佛教 장례의식에 따라 모두 火葬이다. 가끔 보이는 墓地는 50~100餘坪으로 비석의 숲을 이루고 200~300의 故人이 묻혀 國土의 효율화를 最大限으로 꾀하고 있는 것이 合理的이라 생각 되었다.

10. 明治神宮

祭神은 明治天皇과 昭憲皇 太后 大正九年 11月 1日 청 전된 것으로 武藏野特有의 잡 목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寶 物殿에는 明治天皇이 日常使 用하던 物品 100餘種이 展示 되어 있다. 菖蒲苑은 明治30 年부터 天皇이 皇后를 위해 심게 한것으로 꽃菖蒲는 150 餘種으로 壯觀으로 이루고 있 다.

結 言

1. 名國마다 教育에 많은 關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國力伸張의 原動力을 教育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人力을 能力과 適性에 따라 기술학교 또는 상급학교 진학등이 效果的으로 運營되고 있는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었다.

- 2. 自由中國의 本土收復 意志는 확고하고 단호했으며 그러한 精神은 國民이 한결 같은 것으로 느꼈다. 그리고 三民主義를 通한 國民精神의 응집력은 매우 감명깊었다.
- 3. 泰國의 國民性은 다소 나태한 점도 있었으나 남을 터무니없이 부러워 하지않고 自己自身의 現在의 位置에서 만족하며 남을 개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에게 많 은 느낌을 던져 주었으며 佛 教와 王을 中心으로한 國民 意識의 定着은 泰國의 將來 를 밝게 해주는 것이라고 느 꼈다. 뿐만 아니라 2000餘年 동안 한번도 外侵을 받지 않 았다는 國民的 자존심은 우 리보다 적은 G. N. P에서도그 들의 얼굴에서 비굴함과 그 늘짐을 볼 수 없었다.
- 4. 싱가폴의 正直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 政府施策과그 것이 國民들의 의식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또한 公職 들도 올바르고 公正한 業務 를 遂行하고 있었다. 아무 자원도 없고 하나의 도시에 지나지 않는 싱가폴 그러나 그들은 520萬의 國民과 좁은 國土를 最大限活用하여복된 나라를 건설한 것을 보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
- 5. 傳承된 文化財는 그 나라의 文化尺度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各나라마다 그나라 固有文化를 原型대로 傳承

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國民 精神과 直結될 수 있는 산教 育의 現場이기도 하다.

臺北의 國立博物館 日本의 大阪城 二條城 泰國의 새벽 寺院 및 각종 佛像, 王宮等도 우리의 발걸음을 떨어지지 않 게 하였다. 特히 日本에서의 文化財 保存은 매우 印象的 이었다. 退色된 기둥과 단청 등이 그대로 保有되어 당시 의 모습과 숨결을 들을 수 있 었다. 또한 日本文化의 原流 를 우리祖上에 依하여 이루 어졌음을 現場에서 確認할 수 있어 기뻤다.

6. 우리나라는 5 千年의 歷史와 빛나는文化遺産을 가지고 있다. 비록 戰亂의 禍 를 여러차례 입어 많이 손실 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遺 産이 남아 있다.우리의 文化 를 가꾸고 保存繼承하는 새 로운 使命意識을 갖도록 國 民모두가 努力해야겠다고 생 각되었다.

提 言

1. 國民精神教育의 强化自由中國의 三民主義와 孫文・蔣介石에 對한 崇拜와 佛教思想 泰國의 佛教와 國王 싱가폴의 首相을 頂點으로한 政府信賴, 佛教思想 日本의 佛教와 各種 神宮 參拜精神 등은 그 나라 國民들의 精神的 根幹이 되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國民教 育憲章을 바탕으로 韓民族으 로서의 矜持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國民精神教育의 强 化가 더욱 要請된다.

가. 正直 과 秩序意識의 定立

公職者나 企業人 그리고 國 民 모두가 서로 信賴할 수 있 는 國民性이 定立되어야겠으 며 秩序意識은 親切奉仕와 함 께 반드시 우리의 生活 속에 體質化되어야 겠다.

正直과 秩序는 가장 基礎 的인 國民精神이며 國力을 極 大化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나. 「나보다 우리」라는 생 각과 분수에 맞는 生活定立 一現代社會는 서로 協同하고 協力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自由中國,日 本 싱가폴은 特히 우리 속의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精神 的인 여유와 信賴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愛情을 갖는 風土助成에 努力함이 切實히 要請된다.

그리고 自身의 現在 位置에서 最善을 하다고 거기에 맞는 검소한 生活方法. 남을 지나치게 인식하지 않고 自身의 처지에 만족할줄 아는態度 그러면서 不斷히 努力하는 자세등은 우리나라에서도 定立되도록 努力해야 겠다.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즉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式의 生活態度는 하루빨리 止揚돼야겠다.

原稿足引

◇ 麟蹄文化의 제 2 輯 發刊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原稿를 기다립니다.

● 장 르:詩・수필・제언・詩調・향토史자료등

● 기 간:87.9月末까지

●보낼곳: 인제군 군민회관내 인제문화원



- □小曲 김 양 수
- □ 瑞和里 소묘 최 양 대
- 습관 이 영 진
- □ 보따리 속의 사연 박 복 진
- □ 베푸는 사람들 김 영 미









□詩□

小 曲

김 양 수

果木을 감아오르는 햇발. 끈적거리는 江마을을 굽어본다,

바람 찾은 언덕 위에 번지는 노을.

철새들의 갈기속에 누워있는 울음.

소녀의 어깨 너머로 조용히 쌓이는 어둠.

갈대숲을 뜯어대는 풀벌레들의 몸살.

깊어가는 가을밤 그만큼 성스러운 기도. * 84年 江原日報 新春文藝 동화부문 당선 作家로 作品 活動中임.

□詩□

瑞和里 소묘

최 양 대 서화국교 교사

 永劫을 하루 같이 흘러 구멍 생긴
 落葉을 적시우는
 작은 물줄기
 그 위에
 싱그러운
 또 터질 듯 여문
 산딸기가 고와라.

철부지 꼬마들의 노래 소리 이름 모를 山새 울음 和音되어 긴 — 餘韻을 남기고 흙을 밟은 너 그리고 나 여기에 情과 熱을 다해 새싹에 거름주고 꽃봉오리 곱게 피워 밝은 내일을 손꼽아 보렴.

□詩□

습 관

이 영 진 원통고교 교사

산다는 것이 어쩌면 막연하게 피어나는 추억과 같은 거

간 밤에 나는 토르소처럼 절망하며

처절하게

외쳐 보았다

아,혼몽 속에서

눈 뜨면

오늘도 어김없는

아침 해돋이

산다는 것이

부질없는 몸짓으로 다가와

전갈처럼 따가운

햇살 받으며

오늘도 내

삶터로 습관처럼

발을 옮긴다.

* 80年 江原日報 新春文藝 동화부문 당선 作家.

□ 산문 □

보따리속의 사연

박 복 진 기린고등학교 I 년

낙엽이 대지를 당굴며 내 마음에 고독을 선사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겨울을 알리는 첫 눈이 소리 없이 대지를 감싼다. 이렇게 흰 눈이 내릴 때면문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아니, 문을 박차고 나가 그리운 사람과 손을 잡고 저 흰 눈을 맞으며지구끝까지 걸어 보고 싶다.

흰 눈이 내리면 나는 언제나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기를 좋아 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눈 속 을 한참 뛰놀다 보면 손발이 시 리다 못해 감각을 잃어갈 때, 문 을 열어 젖히고 방으로 들어오 면, 신경통에 시달리는 할아버 지께서 항상 아랫목을 지키고 계셨다. 그러나 나의 새파래진 얼굴을 보시면 당신께서는 선 뜻 아래목을 내 주시며, 주름살 투성이인 손으로 나의 손을 잡 으시며 당신의 가슴에 대 주시 던 할아버지.

아직 그때 할아버지의 심장의 고동이 내 가슴에 쟁쟁한데, 할아버지께서 계셨던 아랫목에 는 당신의 체취가 스민 담요만이 자리잡고 있으니 당신께선 어디로 가셨나이까?

지난달 일이었다. 중간 고사고 오랫만에 맞이해 보는 즐거운 주말 가을의 단풍과 맑은 하늘이 나를 방에 잡아두지 않았다. 또한 보내는 가을이 아쉬워 낙엽을 한번 밟고 싶었기에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친구를 찾아 가기로 했다. 그래서모아두었던 용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실 알지 못하면…"

이란 가사도 잘 모르는 유행가 까지 부르며 버스에 몸을 실었 다. 차 안에는 오랫만에 맞이하는 주말을 야외에서 보내려는 등산복 차림의 청년들과 다정한 연인, 또 나와 같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차에 올랐을지도 모를 소녀 등 차 안은 사람으로 꽉 차 빈 자리라곤 하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서서가야만 했다.

차는 시동을 걸었고 거대한 문명의 창조물은 사람들의 무 게도 모르는 채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다. 뒤로 휙휙 지나가는 산. 그리고 수줍음에 못이겨 머 리를 숙이는 가로수.

얼마를 달렸을까? 달리던 차는 걸음을 잠시 멈추었고, 할 머니 한 분이 작은 보따리를 들 고 버스에 오르셨다.

차는 또 그렇게 미친듯이 달 렸다. 춤추는 바람을 이고, 노래 하는 햇살을 가르며…… 그런데 이게 왠일일까? 차는 갑자기 '끼익'이란 괴음을 질렀고 나는 힘에 못이겨 그만 앞으로 '꽈당'넘어졌다. 이유인즉 차 맞은 편에서 갑자기 송아지가 뛰어 나왔기때문이라고 기사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에이, 이게 뭐람. 기분좋게 오늘을 보내려 했는데……" 하며 겸연쩍은 모습으로 툭툭털어 일어섰다. 수다스러운 소녀들이 나를 보고 낄낄 웃어댔다. 나는 더욱 부끄러워져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 넘어지신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분명 조금전 타신할머니였다. 그런데, 왠지할머니께서는 쉽게 일어서질 못하셨다. 안내양이할머니를 부축하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하자. "아니 난 괜찮네만, 아휴 어 쩌나 딸년한테 이걸 갖다 주 려했는데 이 일을 어쩌나…" 하시며 쏟아진 고추가루를 쓸 어 모으시는 것이었다. 순간, 나 는 할머니의 손등이 벗겨져 빨 간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안

"어머! 할머니 피가나시잖 아요?"

내양도 보았는지

"피? 으응. 괜찮아 이까짓…" "이리 손 주세요. 이렇게 피 가가 나시는데 뭐가 괜찮으세 요" 하며 피가나는 곳을 반창고로 싸매는 것이었다.할머니께서는 미안하신듯 웃고만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할 머니께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 니 60~70되신 할아버지였다.

"할머니! 어딜 가시는진 몰라도 괜찮으슈. 자, 저기 내자리가 비었으니 그리 가서 앉으십시다"

하시자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하시는 것이었다.

두분이 자리에 앉으신후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한 자리에 앉으신 두 분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장난기를 발휘해서 그 분들의 옆에 일부러 셨다.

두 분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가 할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

"할머니는 어딜 가슈.나는 우리 아들한테 가는 길인데."

"예 저요. 저도 딸년 한테 갑니다. 이걸 주려고."

하시며 쏟아진 고추가루를 보 이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할아 버지께서는

"에휴, 다 소용없수. 그렇게 키워 놓으면 다들 저 잘났다고…그저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콧등이 찡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하는 얘기가 자꾸만 떠돌았다.

지난날 나의 할아버지께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 지금와서 느끼니 난 분명 불효자였다. 할아버진 고독하고 외로우신 것이었다. 하지만 나 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을 받으셨다. "맞아요. 늙으면 죽어야지요, 하지만, 억지로 죽나요 다 하 늘이 내려준 목숨인걸요. 하 지만, 사는 동안 만이라도 자 식들 걱정시키지 말고 이런 거나 갖다주며 그런 낙으로 살아야죠."

난 다시금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아른거려 가을속에 잠 긴 풍경마저 볼 수 없었다.

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요 즘 젊은것들 어디 그런 부모 마음 알기나 한답니까? 조 금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늙은 것들 쓰러져 봤자 눈도 깜짝 안해요. 에휴 ..."

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차를 세웠다. 그러나 그냥 내릴 수 없어 그 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 봤다. 담배를 피워드신 할아버지. 고추보따리를 소중히 안고 계시는할머니.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실컷 울었다. 지난날 할아버지 냄새가 싫다고 멀리했던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우리는 얼굴이 더러워 졌으면 세수를 한다. 또 악취가 나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왜 세수를 못하며 악취를 뿜는데도 그걸 뿌리 뽑으려 하지 않는가?

겨울이 가까운 이시간, 아직 도 그 할아버지 얼굴이 떠 오 른다. 담배 연기만 길게 내 뿜 으며 생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 던 그 모습이. 지금 난 다시 손을 모아본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원 왕생을 축원한다. 그리고 초라 하게 늙어갈 나 자신을 생각한 다.

이제 할아버지께 못다한 효 도를 다른 어른들께도 해야겠 다. 또한, 나를 위해 자신의 인 생을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감 사하는 마음과 아울러 그 은혜 에 보답하고자 새로이 다짐해 본다.

郷土文藝

□ 산문 □

베푸는 사람들

김 영 미 인제종합고교 2년

어느 해 10월 일요일에 친구 들과 선생님을 모시고 대승 폭 포를 올라간 적이 있었다. 여행 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다. 내설악에 들어서자 자연을 즐기기 위해 온 관광객이나 등 산객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 일 행은 대승 폭포로 향하기 전에 옛날 사찰을 발굴 중인 절터에 들렀었다. 같이 가신 선생님께

서 국사 선생님이셔서 그곳의 이곳 저곳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곳은 옛절의 모습은 없어지고 주춧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그곳을 빠져 나와 대승 폭포로 향했다. 발상게 물든 단풍과 유색 시냇물이 나로 하여금 감탄사를 퍼붓게 했다. 올라가는 도중 자연보호 캠페인을 나온 일행을 만났다.

모두들 흐뭇하신 모양 이었다. 그 아저씨들 덕분인지 주위가 깨끗해져 있었다. 그날 집으로 오며 많은 생각을 했다.내가 이 지방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 을 가졌다. 나는 우리 고장이 이리도 좋은 곳인지를 그때서 야 느꼈던 것이다.

그때 설악산에서 만난 자연 보호 캠페인을 나온 아저씨들

을 생각하니 한 할아버지가 생 각났다. 우리들 사이에선 메뚜 기 할아버지로 통했다. 지금은 논에 메뚜기가 별로 없지만 내 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해도 메 뚜기가 많았었다. 우리는 손에 음료수 병을 들고 논으로 나간 다. 논으로 간 우리는 논길을 달리며 메뚜기 잡기에 정신이 없다 보면 논길에서 벗어나 논 안으로 들어 가게 된다. 한참을 잡다 보면 언제 오셨는지 그 함 아버지는 '이놈들아'하고 소리 치시며 오시는 것이었다. 우리 는 놀라 달아나면서 언제부터 인지 '메뚜기 할아버지다'하며 달아나는 것이다. 이상스럽게도 메뚜기 잡으러 나가기만하면 그 할아버지를 만났었다. 한달 전 쯤 은자와 함께 강둑에 나간 적 이 있었다. 강둑에 올라서니 산 과 강이 한가로이 고기 낚는 이들과 어우려져 한폭의 그림 같았다. 강둑에 앉아 한참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 아버지 한분이 무엇인가를 열 심히 주우시며 오시는 것이었 다. 자세히 보니 메뚜기 할아버 지였다. 할아버지는 전보다 많 이 늙으신 것 같았다. 우리는 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무엇 을 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니 할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 하 셨다.

"여름이 오면 강에 피서객들이 꽤 올텐데 우리 마을이 더럽고 지저분한 인상을 주어선 되겠니 그래서 내가 밭일을 끝낸 뒤 조금씩이라도 이런 오물을 줍는 거란다"다음날 학교로 와 친구들에게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마을에 사는 순아가 이렇게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골목길에서 청소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곳을 할아버지께선 돌들을 한곳에 모으고 청소하셨던거야" 순아의 말을 듣고 나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애향 애국하면 너무도 큰 것만을 내세워 겉으로만우리 고장을 사랑한 체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전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생각한다. 고장에 대한 강한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할아버지나 설악산에서 만난 아저씨들처럼베풀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애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애향 애국하면 너무도 큰 것만을 내세워 겉으로만 우리 고장을 사랑한 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⁹⁹

86 인제文化院 사업일지

일 자	사 업 명	장 소	참석인원	비고
'86. 1. 25	86 제 1 차 이사회의	문 화 원	8명	
5.20~5.30	경로효친사상선양 글짓기대회	관 내 중•고등학교	학생전원	
. "	애국·애향에 대한 글짓기대회	"	"	
"	애국·애향에 대한 그림그리기 대회	"	"	
5. 29	청소년 문화강좌	기린고교	350명	
" -	경로효친사상 선양 강연회	"	"	
5. 30	청소년 문화강좌	서화중학교	200명	*
"	경로효친사상선양 강연회	"	"	, .
5.21~6.11	인제 심마니 발굴 재현 연습	원 통 고 등 학 교	41명	
6.12~6.14	제 4 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삼 척 공설운동장	"	9 A
7.25~7.26	향토문화 유적 순례	도내유적지	"	원통고교생
7. 28	향토 자료 수집	관 내 일 원	8명	문화원 공보실 직원
8. 1	86 제 2 차 이사회의	문 화 원	5 명	*
8. 12	상남면 부인회 농악기 전수	상 남 면	30명	
"	남면 노인회 농악기 전수	남면노인회	40명	
8. 29	서화면 청년회의소에 농악기 전수	서화노인회	45명	
9.3~9.16	86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제 연습	인제중학교	55명	인제뗏목
9.17~9.18	86 성화봉송맞이 행사 참가	인제로타리	"	"
9. 26	향토 자료 수집	관내일원	5 명	문화원 공보실 직원
10. 25	V. T. R 순회상영(활용)	원통국교	60명	원통노인회관

일 자	사 업 명	장 소	참석인원	비고
10. 28	내고장 문화논단(강좌)	문 화 관	400명	
"	V. T. R 순회상영(활용)	"	"	
11. 8	86 제 3 차 이사회의	"	7 명	
"	문화상 시상(효자・효부)	"	50명	
11. 10	V. T. R 순회상영(활용)	"	110명	예비군 훈련 병행
11 11. 20	V. T. R 상영(활용)	"	80명	예비군 훈련 활용
12. 2	향토문예지 편집위원회 회의	"	5명	원고·사진· 기타
12. 8 ~20	향토 문예지 발간 자료 수집	관내일원		
1 12. 30	향토 문예지 발간		500부	인제문화지

麟蹄文化院 沿革

일	7	내	역	비고
83.	6. 10	인제 문화원 설립위원회 위원칙	추진 천	
	7. 18	인제 문화원 설립위원회 회의		
	8. 1	인제 문화원 발기인 총회 및 청	왕립총회	
	8. 16	인제 문화원 이사 추천 및 이사	아 임시회의	
	9. 29	인제 문화원 법인 설립허가 신	청	
84.	2. 8	사단법인 인제 문화원 법인 설	립허가 취득	
	2. 8	임원취임, 원장 김진용(초대)		
	4. 1	사무국장 이만철 취임		
886.	10. 24	문화원 2층으로 사무실 이전		







이사 정 병 석



감사 박 해 순



감사 이 창 락



사무국장 **이 만 철**



● 각자가 지 이 다르듯 창건 롯에 어떤 재결 단계가 아니다 소규모의 예 간호의 내용을 다. 그런 와중 히 어린 본 문

· 거떤 크기의 그 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창 :히려 염려스럽 :생연도가 지극 과감한 결단을

듯 또한, 재질

인제문화 하다호

發行處 麟蹄文化院

 發行人
 金
 瑨
 鎔

 編輯人
 編輯
 委員

인쇄처 동일인쇄소

인쇄 1986. 12. 20 발행 1986. 12. 30

■ 本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읍니다.

